

## 개인 일기의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와 전망

“5월12일 일기컬렉션”을 중심으로

최 효 진\* · 임 진 희\*\*

1. 들어가는 글
2. 국내외 일기 관련 연구 동향
  - 1) 연구 자료로서 일기의 특성
  - 2) 국내 일기 관련 연구 사례
  - 3) 해외 일기 관련 연구 동향
3. “5월12일 일기컬렉션”의 내용 분석 결과
  - 1) 일기 수집방법과 정량적 분석
  - 2) 키워드로 본 일기 내용 분석
  - 3) 온라인 전시 테마 개발
4. 연구 자료로서 “5월12일 일기컬렉션”의 활용방안 제언
  - 1) 연구 분과별 일기컬렉션 활용가능성
  - 2) 타 일상자료 연구사례 소개
5. 향후 전망과 과제

\* 제1저자.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아키비스트로 활동 중이며, 2014년 제2회 5월12일 일기수집 이벤트와 2015년 제3회 수집이벤트 기획 실무진으로 참여했다.

\*\*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논저 : 임진희, 「전자기록 장기보존 위험관리 사례」, 『기록학연구』 39, 2014; 임진희, 최주호, 이재영, 「전자기록 에디션 서비스 개발 사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2014.

▪투고일 : 2015년 9월 21일 ▪최초심사일 : 2015년 9월 23일 ▪재확정일 : 2015년 10월 5일

## [국문초록]

일상아카이브란 ‘보통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구체화, 범주화 하여 이에 따라 개인이나 공동체, 더 나아가 한 사회의 기억과 이를 담은 기록물을 수집, 평가, 선별, 보존하는 조직이나 시설, 장소를 말한다. 일기를 비롯해 자서전, 회고록, 편지, 메모 등 실물자료와 온라인 공간에서 주고받는 블로그나 카페 게시물, SNS에 업로드되는 일상의 사진도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매 순간 생산되는 일상기록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필요성이 기록학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기는 시대를 불문하고 한 개인이 매일같이 경험한 사실과 자아성찰 등을 정리한 글로서 기록의 원천성과 개별성, 유일성 등의 가치가 크게 중요시 되고 있다. 최근 여러 편의 일기들이 발굴, 소개되면서 역사학을 비롯해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일기와 기록주체, 생산된 시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또한 언어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는 일기에서 관찰되는 언어습관, 문화수용양상, 저자의 감정이나 심리변화 등을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일기 관련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이 맥락에서 일상기록으로서 “5월12일 일기컬렉션”이 갖는 의미를 찾는다.

“5월12일 일기컬렉션”은 매년 5월12일 시민들이 직접 생산, 기증한 일기로 구성되어 있다. 명지대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가 2013년 첫 ‘5월12일 일기수집 이벤트’를 개최한지 3년이 되는 현재 유치원생부터 80대 참가자들이 육필 (그림)일기, 전자문서, 디지털사진/영상, 음성녹음 등 다양한 유형으로 생산된 일기가 2천여 건 수집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일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기록물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족, 친구, 학교생활, 진로고민 등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

시민들의 생활상과 진솔한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개별 기록물에서 추출되는 키워드와 주제어에 따라 이 일기들이 담고 있는 주제를 더욱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집된 일기들을 형식과 내용에 따라 연구자료로 언어학, 교육학을 비롯해 역사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 연구 가능성을 제언해본다. 그리고 “5월12일 일기컬렉션”이 일상아카이브로서 수집, 보존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주제어 : 5월12일 일기컬렉션, 일상아카이브, 일기, 연구자료, 개인기록**

## 1. 들어가는 글

최근 역사학, 사회학 등의 연구 분야에서는 일상기록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기록학계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는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의 삶에 대한 기록인 일기도 연구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일기는 개인이 여러 동기에 따라 일정기간 하루일과를 비롯해 관찰, 견문, 느낌 등을 정리한 글이다. 보통 1인칭 시점으로 특정 사건 또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에서 당일 또는 하루 이틀 지나 즉시적으로 기록된다는 점이 일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미시사를 비롯해 문화사, 생활사 등 새로운 역사연구 방법론이 소개되면서 연구자들은 일기류 자료가 갖는 ‘개별성’과 ‘유일성’이라는 특징에 주목한다. 일례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조선시대에 생산된 일기가 발굴되면서 해당 기록의 생산자와 생산 환경, 즉 시대사와 지역사에 대한 연구

가 이어졌다. 이후 구한말과 일제시대, 해방 이후 생산된 일기들도 점차 학계에 소개되면서 역사학을 비롯해 인류학, 민속학 등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일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한편 언어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일기에서 관찰되는 일기쓰기 또는 글쓰기 방법을 비롯해 언어사용습관, 문화수용양상, 저자의 감정이나 심리변화 등을 분석한 사례 또한 새로운 연구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상기록으로서 “5월12일 일기컬렉션”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연구 자료로서 개인일기의 가치를 찾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일기에 관한 연구는 특정 저자가 일정기간 쓴 기록에 대해 그 의미를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해당 저자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그의 자아인식, 외부세계 이해양상, 그가 살았던 시대나 거주한 지역, 저자가 속한 계층, 직업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비하면 “5월12일 일기컬렉션” 분석은 이러한 접근과는 조금 다르다. 이 컬렉션은 매년 5월12일 시민들이 직접 생산, 기증한 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2013년 첫 ‘5월12일 일기수집 이벤트’를 개최한 지 3년이 되는 현재, 유치원생부터 80대에 이르는 참가자들의 일기가 2천 여 건 수집되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서로 다른 나이, 거주지,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같은 날 생산한 기록물이라는 점이 이 컬렉션의 가장 큰 특징이며,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기록의 가치와 활용방안을 논의해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 일기 관련 연구들이 짧게는 십년 내외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생산된 기록을 통해 시간 축에서 종적 연구를 수행해왔다면, 5월12일 일기를 통해서는 복수의 생산자들이 쓴 기록으로부터 공통점과 경향성을 읽어 특정 연도와 공간(지역, 장소), 직업, 주제 영역에 관한 횡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횡적 연구에는 시대사 읽기를 비롯해 의식주 생활사, 지역사, 문화사, 제도사 연구들이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문헌조사를 수행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기 관련 국내외 발행 논문들을 통해 연구 동향을 정리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3년간 수집된 일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기록물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방법으로 개별 기록물에서 추출되는 키워드와 주제어에 따라 이 일기들이 담고 있는 주제를 더욱 포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가족, 친구, 학교생활, 진로고민 등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 시민들의 생활과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그 분석 결과로부터 수집된 일기들이 어떤 연구 분야에서 분석,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일기의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볼 것이다. 즉, 일기쓰기 방법과 단어, 문장, 문단 나눔, 젊은 연령층의 신조어나 이모티콘 활용, 고연령층의 한자어나 영어 혼용,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일기작성 등을 통해 언어학적, 교육학적 차원에서 이 컬렉션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기 저자들과 일기에 기록된 사실(事實), 관찰, 견문, 감정변화 등으로부터 정치, 경제와 같은 거시적 접근과 문화사, 생활사 차원의 미시적 접근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개인이 소장하거나 개인이 생산하는 기록물이 사료, 넓게는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 2. 국내외 일기 관련 연구 동향

### 1) 연구 자료로서 일기의 특성

일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날마다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sup>1)</sup>이다. 또한, 문학의 한 장르로 형식상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필문학에 분류된다. 내용적으로는 1인칭 시점에서 필자의 관찰, 견문, 느낌을 기술하기 때문에 주어는 생략된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날짜에 따라 기록되지만, 필자에 따라서는 매일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기는 기술한 날짜가 기록된 날짜에 아주 가까운 시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기는 “즉시(卽時)의 기록”이다.<sup>2)</sup> 이는 한 개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事實)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리하여 기록하는 글인 회고록이나 자서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일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기의 자료적 가치에 관해서는 조선시대 일기의 성격과 분류를 연구한 정구복<sup>3)</sup>의 논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조선시대 자료에 한정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일기의 사료적 가치에 관한 그의 분석은 그 이후에 생산된 일기 자료의 특징으로도 넓혀 적용해볼 수 있다. 정구복은 일기의 특징 가운데 ‘현시성(現時性)’에 주목했다. 어떠한 주체에 의해 기록되었던 일기는 매일 일어난 일에 대해 그날 바로 적거나 또는 하루 이틀 이후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다른 자료보다 ‘현시성’이 강하다고 분석하였다.<sup>4)</sup> 이에 따라 특정 시기에 생산된 일기에 기록된 사실(史實)을 당대인의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많은 연구에서 일기를 주요 사료로 활용하고 있다.

염정섭은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sup>5)</sup>라는 글에서 연구 자료로서의 일기가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언급하면서 일기의 한계를 두 가지로 지적했다. 우선 특정 저자에 의해 생산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오는 부정확성이 가장 큰 한계이다. 일기에는 작성자의

---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결과.

2) 정구복, 「조선조 일기의 자료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19(4), 1996, 4쪽.

3) 정구복, 위의 글.

4) 정구복, 위의 글, 9쪽.

5) 염정섭,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 현실』 24, 1997.

개인적 가치판단이 반영되어 있어 언급된 내용들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 과정에서 필자가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소재는 내용에서 완전히 배제되므로 자료의 은닉성(隱匿性)을 갖는다고 본다.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록한 내용은 당대인들의 시각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과거시행절차나 일생의례와 같이 당대인들이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생각되던 풍속 등은 일반적으로 생략된다. 작성자가 스스로의 치부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미화할 가능성도 갖는다.

일기의 또 다른 한계는 편협성이다. 일기는 작성자가 거주한 지역 내에서의 사건과 현상을 전달해준다는 점에서 지역성(地域性)을 가지므로 자료에 등장하는 상황을 당시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일기는 개인적 차원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의 취합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기록의 편협성(偏狹性)이라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기는 실록이나 고문서, 족보류, 지리지 등의 방증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국내외 사학계에서는 위인들의 행적, 남성과 엘리트 중심의 기록을 지양하고 보통 사람들의 삶을 재조명해야 하는 역사 서술, 즉 일상사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일상사 연구자들은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큰 역사’로부터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사람들의 ‘작은 역사’에 주목했다.<sup>6)</sup> ‘작은 역사’ 쓰기의 기초 작업으로써 보통 사람들의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을 기록화하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sup>7)</sup> 하루 일과, 삶의 공간, 노동의 재구성, 의식주, 여가시간 등 삶의 재생산 영역에 대한 기록화와 혼례, 상례 등 가

6) 김기봉,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푸른 역사, 2000, 240쪽.

7) 락건홍, 「일상아카이브(Everyday Life Archives)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2011, 23쪽.

문 차원에서의 의례와 지역축제 등 비일상성의 기록화 등이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 일기는 다양한 계층에 의해 일상에서 생산되는 기록으로 한 개인의 행적과 사고방식을 담는 글이다. 이를 통해 정치사회적 변화, 경제 호황 또는 불황, 그리고 외래문화 수용에 대한 필자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일기의 생산 맥락을 이해하고자 했던 기존 연구방식에서 더 나아가 생산자 자체에 대한 이해로 연구 자료로서 일기 활용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2) 국내 일기 관련 연구 사례

일기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1990년대를 전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일기를 연구 자료로 사용한 분야로는 역사학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연구에서 참조한 62편<sup>8)</sup>의 논문 가운데 40편이 역사학 논문으로 분류된다. 이는 국내 사학계에서는 생활사가 역사연구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기연구가 다양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새로운 일기자료가 발굴, 소개될 때마다 이를 토대로 한 시대사 읽기방식의 연

---

8) 국내 일기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술저널 검색사이트 세 군데(DBPIA, KISS, RISS)와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 전문자료 검색 창에서 “일기”, “일기 기록”, “일기 자료”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봤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지식플랫폼으로 꼽히는 DBPIA에서는 학술저널 2,544건, 학술대회자료 628건 등 전체 3,855건의 검색결과를 얻었다. 학술지, 국가지식, 공공저작물 DB를 제공하는 한국학술정보사이트(KISS)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검색하면, 학술지 1,587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는 학위논문 497건, 국내 학술지논문 1,762건이 검색된다. 한편, 네이버 전문정보는 “일기”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학술자료 8,004건, 동향 연구보고서 3,854건 등 전체 27,376건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키워드를 “일기 기록”으로 하면 4,300건, “일기 자료” 8,870건)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구글 학술검색을 이용하면 2,460건의 보고서, 연구논문을 찾을 수 있다. (2015년 10월 현재) 이 가운데 기상학, 일기학 등의 분야에서 일기예보, 일기도 등에 관한 연구는 우선 제외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개인적 기록, 사료, 문학 장르로서의 일기 연구에 대한 자료 가운데 연구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일기 62건을 발췌해서 분석해보았다.

구들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만 해도 조선시대에 생산된 자료가 양적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일제강점기에 국내와 일본, 중국, 연해주 등에 거주한 유학생, 독립운동가, 노동자들의 일기가 소개되었고 해방 이후 일반 시민들이 장기간 쓴 일기들<sup>9)</sup>이 향토사학자, 민속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참조한 논문 가운데 묵재일기(默齋日記), 미암일기(眉巖日記) 등 조선시대에 생산된 일기를 분석한 논문은 14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1870~1918)에 생산된 일기를 분석한 논문 11편, 일제 강점기에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경험한 지역 유생, 지식인, 상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생산된 일기를 분석한 논문은 10편, 그리고 해방 이후 평택의 대곡일기, 전북 임실의 창평일기 등으로부터 시대사를 읽어낸 논문은 5 편이다.

역사학 분야에서 일기가 활용되는 방식은 크게 지역사, 생활사, 문화사 연구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일기는 특정 지역의 역사와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과 문화 연구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sup>10)</sup> 1900년에 나온 강북일기를 통해 압록강 이북 지역에 정착한 초기 조선인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연구하기도 하였고<sup>11)</sup>,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구례 지역의 한 가문에서 나온 두 편의 일기인 『시언(是言)』과 『기어(紀語)』를 통해 구한말의 상황과 서구문물의 유입에 따른 구례 지역 유생들의 위기 의식, 일제의 지역 침탈상과 그에 따른 제도와 농촌의 변화를 읽기도

- 
- 9) 전북 임실에 거주한 농민 최내우 씨(1929~1994)의 창평일기, 평택 농민 신권식 씨(1959~2005)의 일기인천 시민 이광환 씨(1926~2000)의 일기 등이 있다.
- 10) 여기에 소개된 논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논문을 통해 일기를 통한 지역사 연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성호, 문만용, 「일기를 통해 본 1970년대 농촌개발정책과 마을사회의 변화」, 『지역사회연구』 22(2), 2014, 29-48쪽; 안승택, 「한 현대 농촌일기에 나타난 촌락사회의 계 형성과 공동체 원리」, 『농촌사회』 24(1), 2014, 7-44쪽; 이현식, 「이광환 일기와 인천의 일상문화」, 『황해문화』, 2008, 366-394쪽.
- 11) 이동진, 「1900년 ‘강북’의 조선인-『강북일기』에 나타나는 변경과 변경민」, 『만주연구』 15, 2013, 47-100쪽.

했다.<sup>12)</sup> 더 나아가 일기의 내용은 한 시대의 의식주와 다양한 영역의 생활사 연구를 위한 사료로 기능한다. 김성수는 목재일기를 통해 조선인의 질병과 치료를 연구했으며,<sup>13)</sup> 한국복식사를 연구하는 이민주는 미암 유희춘의 일기를 읽고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의생활을 조명했다.<sup>14)</sup> 마지막으로 일기는 외국 문화나 근대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외부세계와 자아인식의 양상을 이해하게 한다. 구한말(1899~1900) 서울 경기 지역 상인이었던 주인식의 일기를 통해 대한제국 시기 전통과 근대가 만나기 시작하는 시대를 살았던 한 일반인의 정치인식을 보여주고 있다.<sup>15)</sup> 1919년 3·1운동 시기 재일유학생 양주흡의 일기를 통해서도 당시 재일유학생들의 시국인식과 구체적인 행동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청년들의 심리를 알 수 있다.<sup>16)</sup> 1923년 중국을 방문한 개성 상인의 일기인 『중유일기』연구<sup>17)</sup>에서는 식민지 시대 조선인들의 중국과 근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역사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언어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도 일기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역사학 밖에서 이루어진 일기 연구는 일기쓰기 행위의 기능성에 주목한다. 일기 자료로부터 글쓰기와 언어사용 습관이나 새로운 문화인식, 사회와의 소통과정을 읽어내는 방식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사료로서의 일기분석과 비교할 때 이러한 연

- 
- 12) 이해준, 「한말 일제시기 생활일기를 통해 본 촌락사회상」, 『정신문화연구』 19(4), 1996, 99~117쪽.
  - 13) 김성수, 「목재일기가 말하는 조선인의 질병과 치료」, 『역사연구』 24, 2013, 35~53쪽.
  - 14) 이민주, 「복식 장만과 관리를 통한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의생활-「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5(4), 2012.12. 7~33쪽.
  - 15) 이승렬, 「서울 경기 지역 상인의 일기에 나타난 일상체험과 근대적 공공성-유상 주인식의 「민족의식」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6, 2009, 160~205쪽.
  - 16) 최우석, 「재일유학생의 국내 3·1운동 참여-「양주흡 일기」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1, 2014, 273-315쪽.
  - 17) 이은주, 「1923년 개성상인의 중국유람기 『중유일기(中遊日記)』 연구」, 『국문학연구』 25, 2012, 183~215쪽.

구는 일기 생산맥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구자와 동시대 생산된 일기를 분석한다. 또, 특정 일기에 대한 연구보다는 한 출처에서 동시에 수집된 여러 편의 일기를 비교분석하여 어떠한 경향성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1〉 일기쓰기를 주제로 한 교육학 관련 연구

| 분야    | 논문제목   | 저자       | 생산연도 |
|-------|--|----------|------|
| 국어교육  | 초등학생의 텍스트성 발달에 관한 사례연구: 일기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 서혁       | 1998 |
| 국어국문학 |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일기 텍스트에 나타난 접속 현상 연구                 | 안정아      | 2011 |
| 유아교육  | 유아 부모의 육아일기에 나타난 자녀 양육 경험                          | 모정아, 최기영 | 2013 |
| 초등교육  | 초등 1학년 학생들의 복합양식 문식성 실천 양상 연구: 그림일기 텍스트 제작활동을 중심으로 | 임경태      | 2013 |
| 불어교육  | 일기와 심리치료적인 기능: 스탕달의 경우                             | 조성웅      | 2013 |
| 영어교육  | 윤치호 영어 일기와 영어 쓰기교육                                 | 서민원      | 2014 |

이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일기 관련 연구 사례를 살펴보았다.<sup>18)</sup> 이상 60여 편의 논문을 통해, 그간의 일기 관련 연구가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일기가 연구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일기류 자료가 갖는 일반적 성격이나 특정 일기를 통한 장르 연구 등 총론적 접근, 둘째, 일기에 나온 내용과 저자에 관한 분석을 통해 제도사, 지역사, 생활사, 문화사 등을 밝혀낸 역사학적 접근, 셋째 일기쓰기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일기의 기능성을 연구한 교육학, 심리학적 접근 등이 그것이다.

18) 이는 국내에서 발행된 논문을 전수 조사하여 분류한 것이 아니며 일기와 관련한 연구의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논문 60여 편을 발췌 분석한 것임을 밝힌다.

### 3) 해외 일기 관련 연구 동향

해외에서도 일기는 생활사를 비롯해 문화사, 정신사 연구가 전개되면서 개인의 자아성찰 등을 읽는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왔다. 특히 유럽과 북미 역사학계는 1980년대부터 일기를 비롯한 자전적 글을 사료로서 주목했다.<sup>19)</sup>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고 정리했는지, 특정한 태도를 취했을 때 거기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는지 밝히는 사료로서 나치즘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를 경험한 이들의 일기가 연구된 바 있다. 주자네 추어 니텐(Susanne zur Nieden)은 당시를 살았던 소녀들이 나치즘의 일상을 어떻게 경험했으며, 관련된 사건들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생산된 32권의 일기와 메모록, 7편의 회고록, 3편의 서한집을 조사했다. 그는 이 자료를 통해 ‘정치와 일상의 연루,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자기의지의 역사’를 연구하고자 했고 ‘그 시대를 겪은 후 스스로 그것을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감정세계와 사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을 얻고자 했다.<sup>20)</sup>

독일 역사학자 이사벨 리히터(Isabel Richter)는 18세기 중후반 생산된 일기를 분석하여 이를 19세기 죽음의 문화사와 관련지어 연구했다. 그에 따르면 18세기와 19세기 일기쓰기는 양심적인 성찰과 자기 통제를 위해서였으며 당시의 일기는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퇴보의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이다.<sup>21)</sup> 리히터는 17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작성된 자전적 글 가운데 “일기”라고 명시되어 있는 193권의 인쇄, 출판본 가운데 72권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의 중심은 가톨릭, 개신교,

19) 클라우디아 울브리히, 박성윤, 「역사적 시각으로 본 유럽의 자기증언 : 새로운 접근들」, 『역사비평』 100, 2012.8, 400쪽.

20) 위의 글, 415-416쪽.

21) 이사벨 리히터, 「자기를 쓰다-18세기와 19세기 독일어권 일기에 드러난 경험, 주체성 그리고 개인성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57, 2012, 156쪽.

유대교 등으로 대표되는 일기 저자의 종교적 배경 등에 대한 분석과 각 저자가 쓴 표현에서 분석되는 생(生)의 유한성,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에 있다. 이와 관련해 분석 대상 일기 본문에서는 죽음을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인식하거나, 영혼과 저승, 시체 등과의 문제를 고찰하거나, 스스로의 죽음을 상상하며 꿈 꿈에 대한 기록 등을 주로 참조하고 있다. 리히터는 또한 일기가 본질적으로 글을 쓰는 자아와 글로 표현된 본인을 분리시키는 장르라는 점에서 18세기, 19세기 유행한 일기쓰기 문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 주목한다. 이 시기 일기쓰기 행위는 자아성찰과 자기정화의 과정이며 따라서 일기 저자들이 글 속에 표현된 자아를 발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주체성(Subjectivity)과 개인성(Individuality)이 역사화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기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sup>22)</sup> 일본 일기연구자인 니시가와 유코는 근대에 일기를 쓴다는 행위가 갖는 의미를 밝혔고 대만의 허설희는 대만사 연구에서 일기 자료의 중요성과 일기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일기를 쓴다는 것 - 국민교육장치와 그 일탈』(2009)의 저자 니시가와 유코는 근대 일본에서 일기쓰기는 개인의 습관이면서 동시에 집단의 습관으로 하나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았다. 근대 일기의 다양한 형식을 분석하면서 전쟁시기와 전후 기록된 여러 일기 사례 연구를 통해 일기를 근대 국민교육 장치이면서 그로부터 일탈을 읽어내는 사료로 이해했다. 유코에게 근대 일기 연구에서 중요한 것

---

2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는 HK한국문화연구단 '개인의 전통과 근대' 팀을 중심으로 여러 편의 일기 분석을 진행했다. 이 연구는 개인을 중심으로 근대화 과정을 재검토하면서, 개인의 일기를 통해 다양한 계층, 직업, 지역 출신의 개인이 받아들이는 근대와 전통의 의미를 읽어내고자 기획됐다. 지난 2012년 6월, 앞서 소개한 리히터와 같은 독일 학자들을 비롯해 일본, 한국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국가"라는 주제로 제1회 일기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어서 지난해 5월, 대만 학자들과 함께 "일기와 다양한 근대"라는 주제로 두 번째 학술회의가 열렸다.

은 일기 내용과 함께 상품화된 일기장의 모델, 규격, 가격 등 형식적인 요소이다. 날씨란, 기상/취침시간기재란, 금언, 표지 안쪽 세계지도, 권말부록 등 틀을 가진 일기장이라는 상품의 개발은 일기를 쓰는 개인의 행동이 집단화되고 빠르게 보급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sup>23)</sup> 또한 근대 일본과 그 식민지에서 학교교육은 이러한 일기장을 활용한 일기쓰기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했다. 우리의 초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소학교 시절부터 그림일기, 관찰일기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면서 정확한 일본어 활용은 물론 자기관리, 자기통제를 내면화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근대 일기쓰기에 대한 유코의 연구는 국내 일기연구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일체에 의한 식민지 근대를 경험하면서 근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교육에 의해 일기쓰기가 생활화되었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다이어리 또는 유즈어리 형태의 일기장에 자기 생활을 기록하는 습관이 오늘날까지 대중화되어 있다. 따라서 그 결과물인 일기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그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코의 일기 연구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대만의 허설희<sup>24)</sup>는 자국의 역사 연구에서 일기가 갖는 의미를 밝히면서 대만중앙연구원 대만사연구소 일기해석반의 활동과 일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와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수집된 기록을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기해석반의 조직과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일기해석반에는 각 대학 역사학과 교수, 중앙연구원 소속 박사 및 관련 연구자, 방문학자, 정치학, 사범대 역사연구소 대학원생 등이 주축이 되어 참여한다. 이들은 본문 전사(轉寫)와 교열, 인물/시간/지역/상황 배경에 대한 해설 작업과 이에 대한 검수를 담당한다.

23) 니시카와 유코, 「근대에 일기를 쓴다는 것의 의미」, 『역사비평』 100, 2012, 379쪽.

24) 허설희, 「대만의 일기연구 회고와 전망」, 『민족문화연구』 66, 2015, 91-133쪽.

또한, 기록주체나 관련 인물, 그리고 일기에 등장한 인물에 대한 구술 채록 작업을 통해 내용을 보충하고 서적출판, 학술심포지엄 등을 통해 수집된 일기에 관한 분석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기록주체와 후손, 해석자, 출판기관과의 권한 협의, 오·탈자 교정, 본문 디지털화 및 전사 과정을 거쳐 현재 3만여 편, 997만자에 달하는 9종의 일기가 ‘일기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공개되어 있다. 학술연구자와 공무원은 물론 각 대학 석박사생들도 이 일기들을 학위논문에서 인용한다. 역사는 물론 대만어, 중국어, 법률, 음악, 예술, 희극,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기록 주체나 그가 쓴 일기 본문에 대한 연구는 물론 출판, 전시에도 활용된다.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에게도 흥미롭다. 일기의 형식과 단어, 문장, 문단 수준의 표현방식, 그리고 본문에 나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일기 저자 개인은 물론 그가 속한 가족, 지역사회, 계층, 직업, 문화권 등을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독일의 연구자들과 대만의 허설희가 밝히듯이 일기는 유럽의 문화사, 정신사, 생활사 연구 방법론과 결합하면서 특정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심성을 이해하는 주된 매체가 됐다. 니시카와 유코의 근대 일기에 관한 저서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근대를 경험하고 근대교육에 의한 일기쓰기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기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 3. “5월12일 일기컬렉션”의 내용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연구 자료로서 “5월12일 일기컬렉션”의 가치와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개별 일기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수집된 컬렉션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하고 기록물의 내용으로부터 연구할 수 있는 주제영역을 도출해본다. 이에 앞서 기록물 수집 방법에 따른 수집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본다.

## 1) 일기 수집 방법과 정량적 분석

지난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5월12일 일기수집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sup>25)</sup>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 반복되는 순간을 포착해 오늘날 한국인들의 삶과 문화를 기록화 하고자 기획되었다. 다양한 연령, 지역, 직업의 시민들이 매년 5월12일 하루 동안 경험한 일이나 스쳐간 생각과 느낌을 글, 사진, 동영상, 음성으로 기록하여 그 결과물을 ‘인간과기억 아카이브’<sup>26)</sup> 수장고와 스토리지에 보관한다. 첫 행사에서 유치원생들의

---

25) 이는 영국 동남부 브라이튼 시(市)에 소재한 서식스 대학(Univ. of Sussex)에서 시작된 행사이다. 찰스 매쥐(Charles Madges)를 비롯하여 세 명의 인류학자들은 1937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각자의 일상을 기록하게 했다. 1937년 5월 12일은 영국에서 국왕 조지 6세의 대관식이 있던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인류학자들은 이 날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를 관찰하고자 일반 시민들에게 일기를 작성하게 했다. 그로부터 1955년까지 500여 명의 영국 남녀가 각자의 삶을 담은 기록물 모음이 꾸려졌고, 이를 기반으로 대중관찰아카이브(Mass Observation Archives, MOA)가 구축됐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서식스 대학은 2010년부터 국내에서 열린 동일한 이름의 행사 ‘5월12일 일기수집 이벤트’를 개최해 21세기 영국인들의 삶을 기록화한다. 이 대학 도서관은 영국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일기를 일상아카이브(Everyday Life Archives) 특별컬렉션으로 관리한다. 현재 영국 정부로부터 국가문화예술유산으로도 인정받은 이 컬렉션은 현대 영국인들의 일상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2012년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이 일상아카이브 관련 학술대회를 열고 여기에 참가한 영국 5월12일 일기컬렉션 담당 아키비스트 피오나 커리지(Fiona Courage)를 통해 국내에도 이 행사가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가을, 명지대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가 서식스 대학과 MOU를 맺고 ‘5월12일 일기수집 이벤트’ 한국파트너가 되어 이듬해부터 이 행사를 통한 한국인들의 일상 기록화 사업이 시작됐다.

26) <<http://hmarchives.org/>>.

그림일기, 초/중/고 재학생들이 자필로 쓴 일기, 네티즌들이 한글파일, 휴대폰사진/영상 등 디지털 형태로 제출한 일기 등 579건이 수집되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이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 2천 여 건의 종이기록과 디지털파일이 입수되었다.

기록물 수집은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이벤트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5월 12일에 경험한 일, 만난 사람, 대화한 내용, 식생활, 소비, 열중한 공부나 일, 방문한 곳, 만난 사람, 읽고 보고 들은 내용, 그날의 느낌과 스쳐간 생각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록을 남긴다. 이벤트 참여방법으로 오프라인 참여와 온라인 참여로 나뉜다. 오프라인 참여는 직접 손으로 쓴 글이나 또는 그림, 만화 등으로 일기를 작성하여 해당 기록물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다. 주로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여러 편의 일기를 묶어서 단체로 기록물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국어과나 사회과 교육과정의 수행평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일기가 수집된다. 개인이 직접 오프라인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편을 통해 자필로 작성한 일기를 제출한 참가자는 인쇄매체에 익숙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실버세대가 주를 이룬다. 온라인 참여는 네티즌들이 ‘인간과기억아카이브’ 홈페이지나 온라인전시관에 링크된 행사참여 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전자문서, 메모장캡처, 디지털 사진/영상 등 디지털 객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용량 파일이거나 복수의 객체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는 수집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이때 입력한 참가자 개인정보는 해당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맥락(Context)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수집된 “5월12일 일기컬렉션”의 유형별 분류와 수집량은 다음과 같다.

(표 2) “5월12일 일기컬렉션”의 유형별 분류와 수집량

| 구분            | 디지털 자료 | 실물 자료 | 계    |
|---------------|--------|-------|------|
| 제1회 행사 (2013) | 207    | 372   | 579  |
| 제2회 행사 (2014) | 177    | 750   | 927  |
| 제3회 행사 (2015) | 136    | 406   | 542  |
| 계             | 520    | 1528  | 2048 |

\* 출처 : 『2013.07~2015.06 인간과기억아카이브 백서』,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5, 33쪽

실물자료는 오프라인 참여를 통해 입수 과정에서 수집된 자필일기, 메모, 그림, 만화 등 종이기록물을 의미한다. 유치원생들의 그림일기를 제외하고는 자필로 작성되었거나 전자문서 출력물 등 텍스트 유형의 일기가 대부분이다. 디지털자료는 온라인 참여를 통해 참가자들이 전송한 전자문서, 사진/편집이미지, 음성녹음, 동영상 파일을 의미한다. 실물자료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료도 한글문서 또는 MS워드 등 편집 가능한 텍스트 형태 기록물이 가장 많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비텍스트 유형의 일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수집된 일기를 선별하여 꾸며진 온라인 전시관에서 사진, 음성, 동영상 유형의 일기가 소개되면서 일기의 형식적 다양성이 참가자들에게 알려진 결과로 보인다. 또한, 텍스트 형태로 작성된 일기에도 사진자료가 많이 첨부된 경우가 많아졌다.

주로 2030세대 젊은 층이 한글문서, MS워드 등 전자문서에 글과 사진을 첨부해 텍스트 형태로 기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메모장 기능을 활용해 일기를 작성한 후 이를 캡처하여 이미지파일로 제출한 기록물도 증가했다. 한편, 5월 12일 당일의 인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1~2장의 디지털 사진을 제출한 참가자도 적지 않다. 이는 일기를 주로 종이에 손 글씨로 적는데 익숙했던 시민들의 기록 생산 방법이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지금까지 수집된 “5월12일 일기컬렉션”의 수집처 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인간과기억아카이브 “5월12일 일기컬렉션” 수집처

| 구분                        | 수집처                         | 수집량 (건) |     |
|---------------------------|-----------------------------|---------|-----|
| 제1회 5월12일<br>일기수집 (2013년) | 셋별유치원                       | 93      |     |
|                           | 당서초등학교                      | 221     |     |
|                           | 누원고등학교                      | 54      |     |
|                           | 자운고등학교                      | 1       |     |
|                           | 개인기증 (온라인)                  | 207     |     |
|                           | 소계                          | 579     |     |
| 제2회 5월12일<br>일기수집 (2014년) | 전북여자고등학교                    | 355     |     |
|                           | 김이슬 컬렉션                     | 34      |     |
|                           | 햇빛유치원                       | 48      |     |
|                           | 화산초등학교                      | 34      |     |
|                           | 대월초등학교                      | 57      |     |
|                           | 일산중학교                       | 37      |     |
|                           | 동산고등학교                      | 24      |     |
|                           | 나무와숲지역아동센터                  | 25      |     |
|                           | 녹번복지관 구립어린이집                | 20      |     |
|                           | 육군 6포병 여단<br>878대대/838대대    | 19      |     |
|                           | 자운고등학교                      | 53      |     |
|                           | 높은뜻씨앗스쿨                     | 40      |     |
|                           | 개인기증 (온라인)                  | 177     |     |
|                           | 소계                          | 927     |     |
| 제3회 5월12일<br>일기수집 (2015년) | 충남 천안 높은뜻 씨앗스쿨              | 59      |     |
|                           | 서울 자운고등학교                   | 300     |     |
|                           | 경기 안양 양명고<br>인문학소모임 “후머니타스” | 31      |     |
|                           | 개인 기증                       | 오프라인    | 16  |
|                           |                             | 온라인     | 136 |
|                           | 소계                          | 542     |     |
|                           | 총계                          | 2,048   |     |

## 2) 키워드로 본 일기 내용 분석

다음은 이와 같이 수집된 일기들이 어떻게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5월12일 일기컬렉션”의 주제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개별 일기들을 읽어보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집된 대부분의 일기들이 텍스트 유형이라는 점에서 일기 본문에서 추출되는 키워드와 그로부터 주제어를 추론해 보았다. 일기 본문 분석은 기록물의 수집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기관이나 특정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수집된 실물자료의 경우, 출처별로 일기 생산자들의 나이, 거주지, 소속 등과 같은 기본정보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기록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관심사를 유추한다. 개인이 자율적인 참여 동기에 따라 생산한 일기를 개인정보 입력과 함께 파일 형태로 제출한 디지털자료는 생산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공통성을 가진 생산자 집단의 일기를 분류하고 그로부터 추출한 키워드와 주제어를 중심으로 그들의 관심사를 유추한다.

먼저 실물자료로 수집된 종이기록물에 대해 본문 전사 (transcrip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기 작성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단어와 일기에 표현된 내용을 요약하는 단어 등을 키워드로 추출했다. 1회 수집기록물에서 볼 수 있는 추출된 키워드를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 제시한 키워드는 본문 분석 과정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고유명사와 젊은 세대들에 의해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신조어 등은 풀어서 제시하고 특정 단어가 반복된 경우는 그 빈도수 또한 분석 대상이므로 이를 계산해보았다. 2회 이상 언급된 키워드에는 괄호 안에 빈도수를 명기했다. 출처별 생산자들의 관심사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 대상 건 단위 기록물은 파일 단위 (반 단위)로 15건에서 20건 내외로 비슷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표 4〉 제1회 “5월12일 일기컬렉션” 키워드 추출 예시

| 출처                                 | 주요 키워드  |
|------------------------------------|---|
| 셋별유치원<br>(17건)                     | 자전거(4), 차차차, 꽃, 인형, 스케이트, 감기, 병원, 교회(2), 허수아비, 산책, 행사, 방방(자동차), 낚잡, 바다(2), 축구장, 장난감, 바닷가, 수영장, 돌부처, 청소, 짐수함(2), 유채꽃, 기차, 할머니덕, 산, 캠핑, 바다, 축구  |
| 당서초등학교 <sup>27)</sup><br>2학년 (16건) | 트릭아이 미술관, 쇼핑, 옷, 친구(2), 생일파티, 치킨, 피자, 주스, 꼬리잡기, 화분 케이크, 레시피, 찹쌀 견과 떡케익, 청계산, 등산, 게임, 송례문 복원, 남대문 시장, 분수, 물놀이(2), 외할머니, 교회,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놀이터(2), 자전거, 수학, 한자, 피구, 블랙홀, 외갓집 체험, 새끼줄, 모 심기, 송어, 연동행사, 석가탄신일, 굴렁쇠 굴리기, 연꽃 만들기, 도서관, 별자리, 천칭자리, 다리 부상  |
| 당서초등학교<br>6학년 (23건)                | 생일, 과학학원, 아이스크림(4), 타임스퀘어, 고모부, 한우, 생일케이크, 사촌형(2), 농구, 카카오톡(4), 디지털시계, 알람, 버터바른식빵, 텔레비전(5), 볶음밥, 문제집, 스테이크, 핸드폰(3) 알람, 고창고인돌 휴게소(2), 불고기 덮밥, 외할머니덕, 음악, 게임(2), 고사리, 이모, 이모부, 사촌오빠, 친구(3), 문자, 친척, 캠핑, 삼겹살, 배드민턴(2), 짜파게티, 초밥집, 숙제(2), 복습, 엄마(3), 동생, 컴퓨터(2), 삼성, 갤럭시 s2, 영등포 평생학습관, Dvd 대여, 씨네21, 맘미아, 런닝맨(2), 백년의 유산, 해피타임, 할아버지 발일, 아빠(3), 김치찌개, 코다리, 정글의 법칙, 할머니집(2), 귀경길, 7번방의 선물, 시골, 이찬, 음료수 라면(2) 치킨 피자 사촌동생 음악 인기가요, 공부(2), 영어숙제(2), 학교숙제, 가현이 언니, 교회(3), 빈집, 방콕, 늦잠(3), 쌀국수, 고기, 청국장, 성경교육, 콩밥, 닭도리탕, 놀이터(2), 음식, 불고기, 떡국, 류현진 야구경기, 청소, 로봇(2), 여의도공원, 가족 나들이, 자전거, 세종대왕동상, 외갓집, 자동차, 마트, 과거, 현재, 미래, 타임머신, 동물농장, 시험공부, 짱구, 국어시험공부, 컴퓨터게임, 코난, 이순신, 개그콘서트(2), 햄스터, 라비리스, 오므라이스, 블로그, 트위터, 글라스데코, 고등어, 옥돔, 닭볶 |
| 누원고등학교 <sup>28)</sup><br>1학년 (12건) | 진격의 거인, 학원 숙제, 노원, 신발, 젠틀맨, 뮤직비디오, 촬영, 공연, PC방, 스타크래프트, 리그오브레전드, 아이스크림, 핸드폰(2), 게임(2), 친구모임, 예술의전당, 서울 조각 페스타, 중국집, 깡소 새우, 매운 짜장, 탕수육, 짬뽕, 김밥,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 GTA4 불리, 전어구이, 목욕, 운동(2), 체력단련 심화반, 스트레칭, 제자리뛰기, 운동장 끝에서 끝 달리기, 한 명 업고 뛰기, 전력질주하기, 탁구, 텔레비전(3), 체육학과, 대학교, 하복  |
| 누원고등학교<br>3학년 (17건)                | 이자실(3), 공부(3), 아빠어디가(2), 런닝맨, 한국사 자격증, 무한도전 한국사특집, 역사교육, 생일, 카카오톡(2), 축하, 선물, 치킨(3), 인형뽑기, 행복, 어머니, 닭볶음탕, 교회(3), 피자, 아이언맨3, 빙수, 미술학원(2), 목욕, 학원(4), 수학, 영어, 아이스크림, 스파게티, 운동(2), 곱창, 뒷산, 다이어트, 스트레스, 인생, 아빠 생일, 케익, 편지, 비빔냉면, 피아노, 연습, 고3(2), 호텔리어,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일요일(2), 모의고사(2), 서점, 문제집, 삼겹살, 친구(3), 운동, 수대(2), 늦잠(2), 아이패드, 텔레비전(3), 류현진, 야구중계, 독서실, 강아지(2), 김밥, 연합시험, 빙수, 일본문화, 미용실, EBS, 한국지리, 이남승, 인터넷, 핸드폰, 아빠, 썩떡, 웃정리, 컵라면, 논술, 국어영역, 점수  |

27)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학교 등 기관에서 행사에 집단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출처별로 추출된 키워드를 통해 그룹별 생산자 특성을 읽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출처에 분류된 기록물의 키워드로부터 동일한 연령과 지역, 직업(초/중/고교 학생)을 가진 생산자들의 관심사를 1차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일기를 살펴보면 학생 개인은 물론 가족 단위의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일기가 많다. 형식 면에서 주어가 ‘나’가 사용되기보다는 ‘우리’ 또는 ‘우리 가족’인 경우가 많고, 내용을 보면 글쓴이의 부모나 형제자매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룬다.

개인 단위 참여를 통해 수집되는 디지털자료는 훨씬 더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나이, 직업, 거주지 외에도 성별, 결혼유무, 이벤트 참여 경험, 일기를 쓰는 동기에 따라 실물자료에 비하면 주제별 유형화가 복잡하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의 연령대가 20대 또는 30대라는 점, 그리고 대학(원)생, 직장인, 주부, 그리고 구직자(취업준비생, 무직 등으로 표현)들의 참여가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원)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 연애나 이별 경험에 대한 소회,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또는 이들에 대한 본인의 인식, 날씨/계절 변화나 취업, 이직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본인의 자아인식 등이 디지털 일기에서 읽을 수 있는 주제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2014년도부터 수집된 일기에는 ‘떡방’<sup>29)</sup> 또

28) 서울시 노원구 소재.

29) ‘음식 먹는 방송’을 지칭하는 말이다. 떡방이란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2008년경 인터넷 방송에서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방장 본인이 무언가를 직접 먹으며 시청자들의 식욕을 돋우거나 짠한 느낌을 전함으로써 방송 시청을 유도하는 식이다. (...) 유스트립과 유튜브 등 개방형 플랫폼에서도 떡방은 인기다. 대중문화평론가 황진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함께 밥을 먹으며 정을 나눴지만 요즘 들어 가족들과도 함께 밥 먹는 경우가 드물어졌다”며 “이런 현대인들이 방송 속 먹는 장면을 보면 마치 이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 듯한 대리 충족을 느끼기 때문에 떡방이 인기를 끄는 것 같다”

는 ‘쿡방’<sup>30)</sup>이 대세가 되었던 대중문화의 코드를 반영하듯 사진과 같은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가정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이나 외식, 급식, ‘혼밥’<sup>31)</sup> 등으로 섭취한 음식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또, 여행, 어학연수, 교환학생, 유학, 취업 등 외국문화에 대한 경험이나 해외 진출 계획, 또는 그에 대한 희망을 담은 일기도 많았다.

다음의 표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수집한 일기로부터 대한민국 시민들의 일상을 연구할 수 있는 주제 영역을 열거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하게 반복된 주제들은 제거하고 대분류가 어려운 경우 괄호 안에 세부 주제와 본문에 직접 사용된 키워드를 제시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출퇴근, 등하교, 학교생활, 직장생활, 의식주, 대중문화 소비,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은 매년 수집되는 일기에서 자주 찾을 수 있는 주제이다.

〈표 5〉 “5월12일 일기컬렉션”을 통해 연구할 수 있는 주제 영역 연도별 분포

| 수집년도 | 주제영역   |
|------|--|
| 2013 | 종교, 대중문화(텔레비전, 스포츠중계, 영화, 만화, 공연), 식생활, 온라인, 디지털문화, 음식, 여가/나들이, 진학/진로고민/취업준비, 자아성찰, 외식, 기념일, 학교생활, 건강, 대인관계(가족, 친구), 쇼핑/소비문화, 의생활, 연애, 교육 (학원, 자율학습), 일상외레, 대인관계(가족, 친구, 연인), 직장생활, 의생활, 출퇴근, 여가 |

라고 말한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먹방 마케팅도 다양해졌다. 주인공들의 먹방을 갈무리해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드라마가 등장했으며 최근엔 대다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를 굳혔다. [네이버 지식백과] 먹방 (트렌드 지식사전, 2013. 8. 5, 인물과사상사).

- 30) ‘먹방(먹는 방송)’이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요리하다는 뜻의 ‘쿡(Cook)’과 ‘방송’의 합성어다. TV프로그램 등에서 단순히 맛있게 먹기만 했던 것에서 벗어나 출연자들이 직접 요리하고 레시피를 공개한다. [네이버 지식인 오픈백과]
- 31)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신조어 혼밥족에서 나온 말로,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혼자 식사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오늘날 식문화의 한 형태로 읽힌다.

|      |  |
|------|--|
| 2014 | 음식, 건강, 가족, 여가(오락, 게임), 친구, 대인관계, 온라인, 디지털문화, 날씨, 식생활, 직장생활, 진로고민, 해외, 연애, 이성, 의생활, 감정변화, 죽음인식, 자기개발, 자아성찰, 대인관계, 대중교통, 쇼핑, 화장품, 공부, 교육, 여행, 이동, 교통수단, 커뮤니케이션, 신조어, 이모티콘, 주생활, 사업, 반려동물, 직장생활, 대학(원)생활, 대중문화, 자아성찰, 육아 |
| 2015 | 연애, 자아성찰, 진로고민, 해외, 대인관계, 친구, 가족, 연애, 이성, 디지털, 식생활, 대학(원)생활, 청년문화, 음식, 심리, 대중문화, 날씨, 의생활, 직장생활, 종교, 아르바이트, 식생활, 건강, 게임(여가), 영화, 소비, 커뮤니케이션, 일생의례, 죽음의식, 대중매체(라디오), 육아, 직장생활, 감정, 자아성찰                                  |

3년에 걸쳐 수집된 2천여 건의 일기를 주제별로 목록화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일기 작성에 사용된 단어가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매년 같은 날짜에 수집을 실행함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는 요일별 일상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이는 생산자의 정보에 따라 유형화된다. 가령,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일상이 요일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연도에 이슈가 되었던 시사적 이슈, 인기를 끌었던 대중문화콘텐츠에 대한 생산자들의 경험도 찾을 수 있다. TV프로그램이나 특정 게임, 만화 등에 대한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데에 있어 언제(수집시기), 어디서(생산자 거주지), 누구와 함께 소비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느낌이나 감상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5월12일 일기컬렉션”은 시간적 축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거주지 분포나 일기에 언급된 지명이나 공간 분석을 통해 공간적 축으로도 읽을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 기록물 수집 단계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물론 각 광역시도와 크고 작은 군소 지방도시와 농촌 등 다양한 지역에서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기 작성자들의 정보를 프로파일<sup>32)</sup>화함으로써

32) ‘프로파일’이라는 단어는 원래 자료수집이라는 뜻을 가지나 주로 수사기법에서 범죄현장을 분석해 범인의 습관, 나이, 성격, 직업, 범행 수법을 추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일컫는다. 그런데 영국 서식스 대학 등을

그 관심사 또한 유형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학교, 나이(학년), 직장에서 수집된 일기의 본문에 노출된 단어와 내용, 표현 등을 분석함으로써 생산자들의 일상을 읽어낼 수 있다.

### 3) 온라인 전시 테마 개발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2013년과 2014년 “5월12일 일기컬렉션” 수집물 가운데 매년 해당 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일기 약 50여 건을 선별하여 공개소프트웨어인 오메카(Omeka)<sup>33)</sup>를 활용해 온라인전시를 기획하였다.<sup>34)</sup> 이 때 매년 수집되는 일기들 중에서 우리 시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의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일기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즉, 해마다 수집되는 일기를 가족애, 우정, 사랑, 노동, 의식주 등 보편적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한편으로는 매년 달라지는 요일별 일상은 물론 학생,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일기 생산자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우선 제1회 5월12일 일기컬렉션의 온라인 전시 섹션 구성은 아래와 같다. 2014년 5월, 두 번째 일기수집 행사를 앞두고 2013년도에 수집된 일기 579건 가운데 50여 건의 대표 콘텐츠를 선별했다.

---

비롯해 영국 공공, 민간 연구소와 학자들이 MOA자료를 활용해 사회학, 교육학, 미디어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MOA에 수집된 일기들의 생산자 분석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 1차 원전자료 분석을 시도했다. 여기에서는 이들 학자들이 적용한 연구방법이라는 의미에서 프로파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3) 오메카(Omeka)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최윤진, 최동운, 김형희, 임진희, 「공개 소프트웨어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2, 2014.10, 135-183쪽.

34)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온라인 전시관 <<http://hmarchives.org/omeka/exhibits>>.

〈표 6〉 제1회 “5월12일 일기컬렉션” 온라인전시관

| 섹션명        | 내용   | 수집량 (건) |
|------------|--|---------|
| 성장일기       | 입시, 취업, 육아, 수험생활 등을 기록자가 해당 주제를 통해 스스로 육체적 정신적 성장에 대한 성찰을 한 기억 묘사한 기록    | 9       |
| 특별한 일요일    | 산책, 나들이, 소풍, 새로 생긴 친구나 반려동물 등 특별한 경험을 묘사한 기록                             | 12      |
| 부모님 사랑     | 자녀나 손자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 모음                                 | 4       |
| 친구와 함께     | 기록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친구들과 함께 보낸 하루에 관한 내용 소개                                    | 8       |
| 따분한 하루     | 일요일이라는 시간적 맥락 상 특별한 일정 없이 하루를 보낸 이벤트 참가자들의 일기들이 컬렉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이를 테마화함 | 9       |
| 생일 그리고 이벤트 |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 5월 12일이 특별한 이벤트였던 기록자의 일기 모음                | 8       |
| 총계         |  | 50      |

\* 출처 : 『2013.07~2015.06 인간과기억아카이브 백서』,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5, 64쪽.

2013년 5월 12일은 일요일이었다. 따라서 가족들과 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특별한 곳에 가서 식사를 한 참가자들의 일기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원 강의, 인터넷 강의, 자율학습, 취업준비에 매진해야만 했던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일기, 그리고 특별한 일정 없이 지겹고 무료하게 집 안에서 머물렀던 내용의 일기 등을 볼 수 있었다. 2013년 화제가 되었던 대중문화 코드와 사건사고를 담은 일기도 몇 편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 12일 있었던 LA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야구 중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파문, MBC 무한도전 한국사 특집 등을 접한 참가자들의 일기를 통해 해당 연도에 이슈가 된 주제들을 엿볼 수 있다.

2회 수집기록물에 대한 온라인 전시는 2014년 10월에 기획되었다. 2014년도 행사에서 수집된 927건의 수집물 가운데 세부주제별로 62건을 선별했다. 1회와 마찬가지로 가족, 친구, 학교 등에 관한 내용이 많지만, 2회 수집물에는 음식이나 요리 등 식생활, 연애, 이별 등 좀 더 사적 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와 다양한 직업별 일상을 볼 수 있는 일기가 많았다. 2회 온라인 전시관의 주제별 섹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제2회 “5월12일 일기컬렉션” 온라인전시관

| 테마     | 내용  | 수집량 (건) |
|--------|---|---------|
| 맛있는 하루 |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과 맛있는 순간을 함께 나누고 찍은 사진 중심 전시  | 8       |
| 특별한 하루 | 본인 또는 가족의 생일, 첫 출장, 주민증 발급 등 5월 12일이 필자에게 이벤트였던 기억<br>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필자가 직접 “특별했다”라고 언급한 기억들을 강조해서 전시에 활용 | 12      |
| 가족과 함께 | 육아일기, 여행, 외식, 산책 등 가족들과 함께 보낸 기억<br>가족 구성원에 대한 필자의 생각   | 8       |
| 친구와 함께 | 수다, 여행, 외식, 싸움 등 친구들에 대한 기억<br>반려동물이나 사물을 친구로 생각한 필자의 일기도 여기에 포함  | 4       |
| 사랑한 기억 | 이벤트 당시 연애, 이별을 경험한 참가자들의 생각 및 제출된 사진, 이미지 발췌<br>공개 동의한 콘텐츠를 활용하되 제출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각별히 주의 (얼굴 모자이크 등)      | 6       |
| 진로 고민들 | 고3,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들의 진솔한 진로고민   | 8       |
| 직업별 일상 | 선생님, 군인, 디자이너, 회사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간호사, 아르바이트 등 직업별 일상   | 16      |
| 총계     |   | 62      |

\* 출처 : 『2013.07~2015.06 인간과기억아카이브 백서』,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5, 65쪽.

2회 행사가 개최된 2014년 5월 12일은 월요일이었다. 따라서 이 해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월요일을 보낸 유치원생, 초/중/고 재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전업주부, 워킹맘 등의 하루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해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였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가자들의 경험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적지 않다. 부모님을 따라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한 초등학생의 일기, 참사 이후 현장학습 등이 취소되어 아쉬움을 표현한 어린이들의 일기, 참사 이후 직업적 고민을 숨기지 않았던 한 교사의 일기 등은 시대를 대표하는 보통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록이라 볼 수 있다.

2014년부터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참가자들이 제출한 일기의 디지털사본(스캔본)을 1년 후 이메일로 재발송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2회에 수집된 일기에는 대학진학, 취업준비, 이직 고민 등 청년층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과 연애, 이별, 짝사랑 등 이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각자 2015년에 전년도에 제출한 일기를 받았을 때 고민이 잘 해결되어 있을지 궁금하고 남다른 각오로 어려움을 극복해보겠다는 의지가 많이 담겨있었다.<sup>35)</sup>

올해 수집된 제3회 “5월12일 일기컬렉션”에도 앞서 두 해에 걸쳐 수집된 일기와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한 추억이나 개인의 자아성찰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화요일의 전형적인 학교생활을 볼 수 있는 각 급 학교 재학생들의 일기와 대학(원)생들의 과제, 졸업시험, 취업준비, 해외연수, 아르바이트, 연애 고민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나 워킹맘들의 육아일기와 남편, 시댁식구들에 대한 생각, 체중관리나 운동 등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식,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한 게임, 웹툰 등 대중문화소비, 개봉영화, TV프로그램 시청 행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커뮤니케이션 유형, 블로그,

---

35) 「Rikar 활동브리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발행 월간브리프-기록하자 [Haja]』 2015년 5월호, 3쪽, <[http://issuu.com/rikarnews/docs/haja\\_201505](http://issuu.com/rikarnews/docs/haja_201505)>.

카페, 유튜브, 포털 사이트 검색 등 온라인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전시에서 소개된 일기들을 통해 행사를 홍보한 직접적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참가자들이 일기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온라인 전시에서 보여준 일기들을 통해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일기를 읽으면서 본인의 자아성찰과 하루를 정리하는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수집된 일기에 대해 온라인 전시를 기획할 때 콘텐츠 선별에 시사점을 준다. 많이 언급되는 주제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시섹션을 구성하는 한편 주제별 다양성을 보여주는 기록물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3회 일기 수집 과정에서는 자필로 작성한 일기를 우편을 통해 제출한 참가자가 많았다. 젊은 시절부터 일생동안 일기를 작성해온 고연령층 참가자들이 올해 5월 12일 일기편만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한 경우가 많다. 또, 연령대가 높더라도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경우는 한글문서 등 전자문서에 작성한 일기를 사진 등과 함께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내기도 했다. 종교 활동, 시사적 이슈에 대한 생각, 은퇴 이후의 취미생활이나 친구들과 함께한 외식이나 여행, 자녀와 손자손녀들과의 일상이나 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젊은 시절부터 본인이 살아온 인생 전체와 나이 들에 대한 소회,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생각,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변해가는 세상에 대한 외부환경과 자아인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4. 연구 자료로서 “5월12일 일기컬렉션”의 활용방안 제언

그렇다면 이처럼 수집된 일기를 어떤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장에서는 개별 일기를 읽고 구체적으로 특정 연구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5월12일 일기를 비롯한 일상이카이프

연구의 확장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해 영국 서식스 대학 측이 수집한 자료(이하 MOA자료)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연구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장에서 인용한 일기들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수집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저작물 내용과 저작권자의 정보 공개에 동의한 기록물에 한해서만 인용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 1) 연구 분과별 일기컬렉션 활용가능성

“5월12일 일기컬렉션”은 국내외 연구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학을 비롯해 사회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앞서 해외 연구 동향에서 소개된 대만의 일기 연구 사례가 또 다른 참고가 된다. 허설희<sup>36)</sup>는 현재 9편의 일기가 DB화 되어 있는 ‘대만 일기데이터베이스’ 등을 소개하며 일기 자료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정리했다. 그는 ‘대만의 일기 연구 회고와 전망’이라는 글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일기자료의 연구 성과를 사회사, 정치사, 정신사, 음악사 등의 측면에서 보았다. 일기의 내용과 기록주체에 관한 연구를 통해 1945년 일제로부터 대만 해방을 전후로 하여 당시 사회상의 변화, 즉 치안유지, 물가변동, 사회불안 등과 이에 대한 당대인들의 시국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DB화된 일기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생산되었는데, 이 시기의 일기를 통해 개인이 사적,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근대성을 받아들이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한편, 허설희는 앞으로 일기는 생활사, 여성사, 문화사, 정치사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사료를 제공한다고 본다. 일기 속에 기록된 물가, 음식, 교통노선, 레저생활, 친구관계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확인되는 사회문화현상과 이 현상이 개인과 특정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sup>37)</sup> 또, 기록주체가 구매하는 책, 구독습관, 참여하

36) 허설희, 「대만의 일기 연구 회고와 전망」, 『민족문화연구』 66, 2015, 91-133쪽.

는 문화단체, 서사의 형식,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 적절하게 선택하는 용어 등으로부터 당대인들이 수용하고 있는 문화를 읽어낸다.<sup>38)</sup> 그리고 특정 정치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록주체가 해당 사건을 접하고 글로 정리한 인식과 감정, 대응방식 등은 일기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5월12일 일기컬렉션”의 활용 가능성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구상해 볼 수 있다. 먼저 일기 분석의 대상을 크게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형식면에서는 일기쓰기 방식을 비롯해 본문에서 관찰되는 단어, 문장, 문단 나눔, 언어습관, 일기쓰기 방법 등을 분석한 언어학적, 교육학적 차원의 연구가 가능하다. 내용 면에서는 일기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객관적·주관적 요소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시적 또는 미시적 접근이 가능하다.

교육학적 차원에서 5월12일 일기를 읽어보자. 유치원이나 각 급 학교에서 수집된 기록물은 물론 일반인들의 기록물을 읽어보면 이들 일기에는 공교육을 통해 학습된 일기쓰기 습관을 찾을 수 있다. 수집단계에서 생산자들에게 다양한 형식으로 일기를 제출할 수 있음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 표현된 대부분의 일기에서는 몇 가지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요소가 있다. 즉, 연/월/일 형식의 날짜 표현과 요일, ‘맘음’, ‘흐림’, ‘흐리다 갸’ 등과 같은 주관적 날씨 묘사, 일기의 내용을 요약한 제목, ‘나는 오늘’으로 시작되는 첫 문단 표현, 일기의 주요 요소로 알려진 관찰, 견문, 감상 등이다. 따라서 이 컬렉션을 일기쓰기 또는 자전적 글쓰기 교육과 그 문화적 수용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1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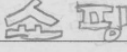
---

37) 위의 글, 121쪽.

38) 위의 글, 122쪽.

〈그림 1〉 익명(당서초 2학년 7반), 「쇼핑」, 2013, IT229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

제목 :  쇼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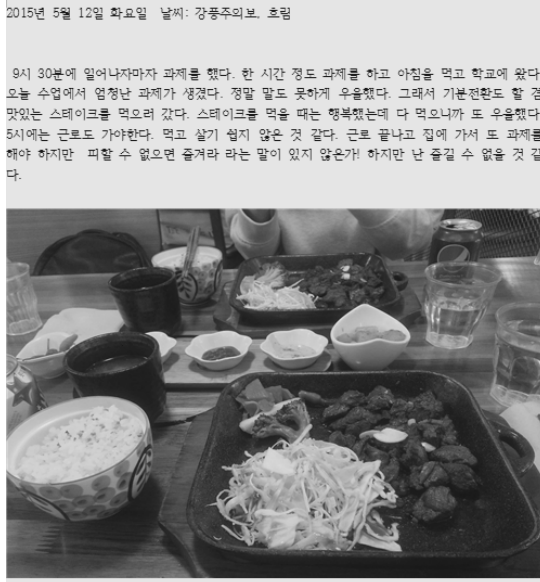
우리 가족 모두는 옷을 사러 갔다.  
 우선 엄마께서 사고 싶은 옷을 샀다.  
 엄마께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여러가지  
 옷을 입어 보셨다. 그래서 엄마께서는  
 화려한 치마와 멋진 바지들을 사셨다.  
 다음 차례는 내 옷을 사러 갔다.  
 거기에서는 예쁘고 화려한 치마들이  
 많았지만 엄마께서는 편안한 바지를  
 사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조금 상하였다. 그래도 엄마께서

〈그림 2〉 김\*\*(서울 자운고), 「방과후」, 2014, i201409MK236

2014.05.12 월요일. 날씨 맑음      30706점리

오늘 학교 끝나고서 오랜만에 우리반 수녀님 놀러갔다. 들이서 생문역  
 쪽으로 걸어가려고 가인 자치도를 이용해서 얘기하면서 걸어갔는데  
 에이치비방문 쪽에 죽이야기가 새로 오픈해서 생안마을 손 앞바생과  
 카다리 아저씨가 있었는데 우리 둘다 카다리아채를 무서워해서 뛰어서  
 도망쳤다. 원래 생문역에 있는 연경점에 가려고 했는데 땀과 너무  
 자쳐서 바로 앞에 있는 다비치만점점에 들어갔다. 거기 직원분께서 친절  
 하시고 잘 해주셔서 기분 좋게 나와서 배고파서 아말을 가서 떡볶이  
 램 뒤를 수녀님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서 너무 더워서 이다야에 가서

〈그림 3〉 현\*\*(22세 대학생),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날씨」, 2015, 미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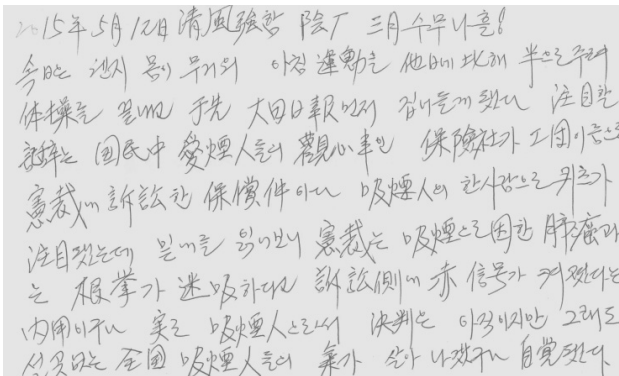
또한 문법적 요소나 언어습관을 분석하여 언어학적 차원에서도 5월 12일 일기를 읽을 수 있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연령, 학력수준, 지역, 직업군의 사람들이 쓴 일기에서 주어와 동사의 사용, ‘그런데’ ‘그러나’ 등과 같은 접속 표현, 인명/지명/작품명 등과 같은 고유명사 인용, 부사와 형용사 등 수식어의 사용 등 문법적 요소를 찾아내 그 경향성을 읽어낼 수 있다. 국어사용은 물론 외국어, 외래어, 신조어 등의 수용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과 20~30대 연령층이 쓴 일기에는 줄임말과 신조어, ‘ㅎㅎ’, ‘ㅠㅠ’ 등과 같이 이모티콘을 이용한 감정표현이 많다.

자각하지 못했는데 슬슬 고3이라는 실감이 든다. (그동안 고3

임을 자각하지 못했던 내가 한심스럽다 ㅠㅠ) 공부시간을 늘려야 할 것 같아서 어제부터 실험을 했다. 저녁 먹을 때라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건 어떨지!!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자 (=오래 집중하자) 요즘 어떤 대학 같지 모르겠고 어떤 전형으로 같지도 불확실해서 고민했는데.. 아직도 고민된다.. 근데 뭐 어찌리 ㅠ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ㅠㅠ 나는 지금 자기소개서도 쓰고 있는데 구세주 인영 언니!!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만나다니 신기하다. 사탐 선택도 고민되고 ㅋㅋ 히히 한국사~~ 지균이나 일반전형이나 고민되는데 지균도 받을 수 있나?? ㅠㅠ 지금 내 인생은 슬럼프에 빠진 것 같다.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다. 열심히 하자.39)

50대 이상 참가자들의 일기에서는 한자어와 영어 혼용한 흔적도 발견된다.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고 영어가 수용되고 있는 우리 시대 언어 습관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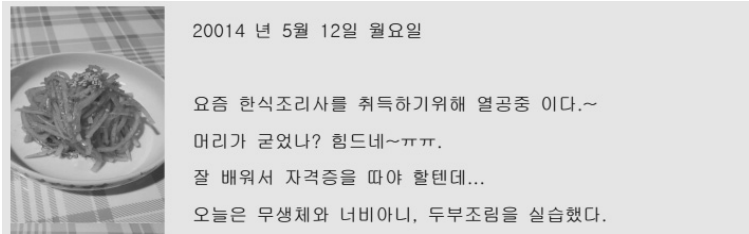
〈그림 4〉 이\*\*(72세, 대전), 「5월 12일 일기수집 이벤트를 알게 되다」, 2015, 미등록



39) 작자미상(서울 자운고), 「고3을 자각하다」, i201409MK23.

한편, 그림이나 만화, 사진 등을 글과 함께 표현한 일기를 통해 기록 매체에 따라 외부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의 변화도 분석할 수 있다.

〈그림 4〉 화니\*\*\*(41세, 주부), 「한식조리사 공부」, 2014, i201409MK540



내용면에서는 국내외 연구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문학과 사회 과학 분야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기록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 견 문에 대한 열거와 묘사와 같은 객관적 요소와 이에 대한 느낌, 정서, 상상, 자아성찰 등 주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치학, 경제학과 같은 거시적 차원과 생활사, 문화사, 여성사 등 미시적 차원에서 모두 접근할 수 있다.

우선 기록주체에 관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주제를 연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 참가자들의 일기는 지역사 연구를 위한 원천사료가 된다. 특정 지역에서 수집된 일기에는 일기 생산자가 가족들과 함께 인근 지역에 여행이나 나들이를 다녀왔다거나 친구와 함께 특정 음식점이나 카페, 쇼핑센터, 변화가 등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 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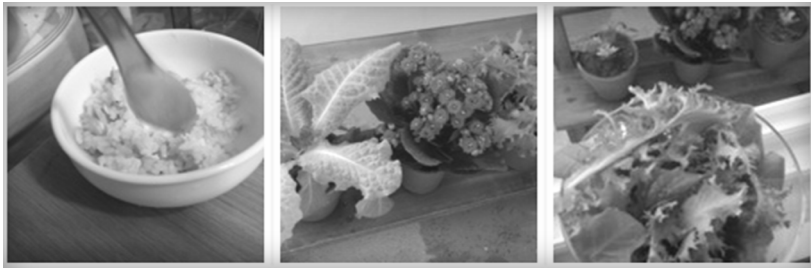
오늘 건무와 함께 건무의 신발을 사러 노원 다녀왔다. 건무와 함께 다양한 곳을 둘러보았지만 뉴발란스 매장에서 건무의 신발을 샀다. 신발을 사고 건무가 음료수를 사주었다. 맛있었다. 시원

했다. 시원하게 음료수를 마시고 담요를 사러 노원문고를 둘러보았지만 담요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지하철역에 있는 다이소에서 담요를 구매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집에 도착(도착)한 후 나는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밥을 맛있게 먹은 나는 기분이 좋아 잠을 청하였다. 개운하게 밤늦게 일어났다.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였다.<sup>40)</sup>

지명이나 상호 이름을 인용한 경우도 있으며 당일 촬영한 사진을 함께 첨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록으로부터 해당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변화 양상 등을 읽는다.

또, 전업주부, 워킹맘,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머니들이 쓴 일기를 여성학적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 컬렉션에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이유식이나 아이들의 식단에 관한 일기, 아이들의 놀이문화, 학원교육 등 육아일기의 성격을 가진 글이 많다.

〈그림 5〉 문\*\*(30세, 주부, 부산), 사진(.jpg) 48건, 동영상(.mp4) 1건으로 구성된 육아일기, 2014, i201408-8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휴일이나 바쁜 평일 아침을 보낸 흔적을 남겼다.

40) 작자미상(서울 누원고), 2013, IT345.

2014년 5월 12일

남편이 계속 바빠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 휴일을 보낸 이후의 월요일이다. 월요일은 회사 전체 회의가 있거나 내부적으로 업무 상태를 점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찍 출근하려 노력한다. 출근하기 직전 남편을 깨우고 전날 옆단지에 사는 시아버님께 주문한 쌀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침 출근길에 반찬이랑 챙겨서 전해드리기로 하였다. 10kg짜리 쌀 한 포대를 옮기는 방법은 아들 유모차에 싣고 가는 것이다. 단지 내를 걸어가는데 아기가 아닌 쌀이 실려 있는 유모차를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한다. 쌀과 반찬을 전해드리고 유모차는 다시 끌고 와서 집 앞에 두고-어린이집 갈 때 필요하기에- 지하철을 타러 갔다.

종점 직전 역에 거주해서 지하철을 타면 항상 앉아서 갈 수 있고 색조화장을 간단히 한다. 스마트폰으로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서 SNS를 훑어보다보면 35분 시간이 금방 흘러간다. 처음에는 그 시간에 책도 읽어보고 자격증 공부도 했었는데 한 챗터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새는 그냥 가볍게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기사를 훑어보고 만다. 집과 직장이 모두 지하철역과 가까워서 걷는 시간이 너무 적다보니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려 노력하는데 구두를 신고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다리도 움직여지지 않고 숨도 가빠질 만큼 체력이 약해짐을 느낀다.<sup>41)</sup>

60대 이상 고연령층 여성들의 일기에는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이 나타난다.

어버이날이라고 어제 태희네 태연이네 모두 함께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우리 식구 모두 모이면 열 식구다. 장환, 혜영이

---

41) eun\*\*\*\*(32세 회사원), 「워킹맘의 하루」, 2014, i201409-MK68.

네 2세가 생기면 몇 명이 될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17일이면 태희 생일. 장환이랑 혜영이가 생일 케익과 샴페인, 그리고 선물, 우린 서로 준비한 선물을 주며 즐거워했다. (...) 점심은 다 같이 봉평 메밀 막국수로 포식하고 집에 와서 조금 쉬었다가 저녁도 안 먹고 각자 집으로 갔다. 좀 섭섭했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말이 실감이 간다. 밀물이 빠져 나간 것 같이 쓸렁하다.<sup>42)</sup>

이러한 일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시대에 여성의 연령변화와 사회진출에 따라 가정 안에서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들의 연령이나 소속에 따라 그들의 관심사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수업, 발표 준비, 과제, 동아리활동,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일기에서 대학(원) 문화를 알 수 있다.

학기 시작 직전 한국에 도착해, 정신없이 학기가 시작됐다. 시간은 정신없이 달려 어느덧 학기는 약 한 달을 남겨놓고 있다. 모든 것이 정신이 없고 바쁘다. 할 건 너무 많고 마음은 초조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리가 안된다. 매일매일 다른 팀플이 나를 기다리고, 벌써부터 기말고사가 걱정이고, 사고싶은 건 많고, 돈은 없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외롭고, 너무 정신이 없다. 나도 꼴에 24살이라고, 생각이 많아진다.

이번학기는 뭔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위태위태 하지만 1년만에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많다. 졸업이라는 글자가 가져다주는 압박감 역시 나에게서는 먼 일인줄로만 알았는데 너무 가깝게 느껴진다.<sup>43)</sup>

42) sku\*\*\*\*(69세, 전업주부), 「오늘 같이 좋은 날」, 2013, IT483.

43) 안\*\* (24세, 대학생), 「모든 것이 정신없고 바쁘다」, 2014, i201409-MK18.

취업준비생들의 고시준비, 면접, 자기소개서, 영어나 컴퓨터 등 ‘스펙 쌓기’ 등에 관한 글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시대 청년문화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밤새도록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과 스트레스로 잠이 늦게 들었다. 엄마는 아침 7시에 청소일을 하시러 나가는데 그 때 제대로 깨서 인사도 못했다. 간신히 눈을 뜨니 오전 10시쯤 이었다. 일어나서 곧바로 컴퓨터를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질리도록 보고 다시 구직사이트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는지 보았다. 하지만 맨날 비슷한 일자리 뿐이다.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전문대를 나오고 편입까지 해서 4년제 대학에 갔는데 의지부족으로 창업에 실패하고 사회성 부족으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운 나는 적당한 직업을 찾지 못해 아직도 세상을 헤매고 있다. 내가 봐도 한심하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다니…… 어릴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살아 온게 후회스럽다.<sup>44)</sup>

특히 20~30대 연령층이 해외에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등을 다녀오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경우, 또는 해외에 나가고 싶은 소망을 적은 일기가 많이 보인다.

월요일의 아침이 밝았다. 아침 7시에 눈이 바로 떠졌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을 먹고 공장으로 출근을 하러 갔다. 하루에도 수백번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2달 뒤에 가는 프랑스를 위해 무조건 참았다. 아침 9시가 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다행히도 오늘은 고정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제품 마개를 닫는 것이었다. 일을 하다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사는 물

44) 이\*\* (31세, 무직), 「내 청춘 중 하루」, 2014, i201409-MK64.

건들은 사람의 손을 안 거친 것이 없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제품에 정성을 쏟는다. 정말 공장은 대단한 것 같다. (...) 그렇게 집을 오면서, 2달 뒤의 프랑스를 상상해 보았다. 프랑스에 짐시들과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된다. 사실 전에 갔던 영국이나 하와이는 치안이 타 국가에 비해 안전하여 무방비로 다녀도 걱정이 없었다. 근데 프랑스는 워낙 유명한 곳이고, 거기다 성수기인 7월 달이니 여행객들이 넘쳐난다. 내가 왜 이 때 간다고 했을까 후회되기도 하지만 이미 결정했고, 워크캠프도 합격했고 비행기도 예약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돈만 벌면 그만이다. 아무튼 난 앞날만 생각하고, 뛰어야 한다. 여느 때처럼 잘 했으면 좋겠다. 부디.<sup>45)</sup>

그리고 취업준비나 취미 차원에서 영어나 기타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시간에 관한 일기들은 오늘날 외래문화 수용 양상과 이에 대한 생산자별 자아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월요일 날 가질 기대되는 시간은 일본어 시간이다. 일본어 수업에서는 일본드라마인 「꽃미남 파다라이스 (아름다운 그대에게)」로 수업을 하는데 드라마가 유치하고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지만 생각보다 재밌어서 우리 반, 우리 학교에서 다들 그 수업을 좋아한다. 일본어 시간이 끝나고 다시 국어 수업을 했는데 학교 끝나기 바로 전 수업이라서 즐겁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sup>46)</sup>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3학년, 즉 대학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일기에는 학원수업/숙제, 야간자율학습(야자), 수학 또는 영어 경시대회, 분야별

45) 성\*\* (23세, 무직), 「프랑스 출국을 두 달 앞둔 여공의 하루」, 2014, 미등록.

46) 윤\*\* (서울 자운고), 「하루일과」, 2014, i201409MK26.

(미대, 체대) 입시 준비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이를 교육사회학적 측면에서 교육환경이나 교육소비자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벌써 일요일이었다. 오늘은 참 일어나기 힘든 하루였다. 아침부터 학원을 가야한다. 고삼의 하루는 참 어렵고도 힘들다. 난 힘든 몸을 들고서 학원에 갔다가 모의고사를 풀어야 했다. 학원 애들은 다 나와 있었다. 다들 아침이라 졸린 상태에 와서 그런지 애들 표정이 안좋아 보였다. 학원이 끝날 시간이 되니 12시였다. 배고픈 시간이었다. 나는 필요한 문제집을 사기 위해 서점에 들러 책을 샀다. 나는 매번 문제집만 사기에 바쁜 것 같다. 다 풀지 못한 문제집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동안 안 푼 문제집이 너무 낭비였다. 담부터는 필요한 것만 사기로 결심했다.<sup>47)</sup>

한편으로는 일기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특정 일기들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즉 여론을 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승례문 복원에 대한 한 초등학생의 일기, 세월호 참사를 접한 학생들이나 현직 교사들의 일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스캔들에 관한 50대 교수의 일기 등이 있다.

가족과 함께 승례문을 보러 갔다. 나쁜 아저씨가 5년 전에 승례문에 불을 질러 타버려서 없어진 것을 다시 똑같이 만들어 복원하였다. 승례문을 검색해보니 국보 1호 문화재라고 나왔다. 별로 승례문은 멋있게 보이지는 않는데 왜 국보 1호인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왜 국보 1호가 되었는지 알아봐야겠다.<sup>48)</sup>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

47) 조\*\*(서울 누원고), (무제), 2013, IT338.

48) 예\*\*(서울 당서초), 「승례문」, 2013, IT235.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앞섰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 아까운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분노가 끓어오른다. 그 사건을 통해 사회 곳곳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느끼고 있지만 막상 내가 실천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과연 나는 교사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볼게 된다.<sup>49)</sup>

또한 외식, (인터넷)쇼핑, 특정 식품이나 생필품 구입 등에 대한 기록은 경제학에서 소비자 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다. 가족, (이성)친구, 상사/직장동료 등과 함께 한 일상(식사, 외출, 산책 등)에 대한 일기를 통해서도 사회학적 차원에서 연령별 직업별 생산자들의 가정, 직장,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의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출근해서 커피를 한 잔 뽑으러 교무실에 들어갔다. 교감 선생님과 마주쳤다. 그런데 평소보다 좀 싸늘한 교감 선생님의 눈빛... “요즘 바빠요?” 물어 보셨다. 아차! 싶었다. 예상대로 꾸중의 말씀... “친목 회장이 연습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간식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말만 하고 서둘러 교실로 올라왔다. 그리고는 총무 선생님께 전화 드려 간식 주문 부탁드리고 다른 선생님께 응원하러 가자고 메신저 보내고... 내일 회식 장소에 전화 걸어 예약 상황을 확인하고... 친목 회장이 할 일을 하느라 나를 애썼다. 하지만 늘 마음 한 구석에 찝찝한 느낌... 친목 회장... 내가 말을 자리가 아니었는데... 친목 회장을 맡은 지 두 달... 그동안 한 일은 결혼식 대표로 참석한 일 밖에 없었지만 내가 친목회장 맡은 게 꼭 영 기분이 안 좋다.<sup>50)</sup>

---

49) 봉\*\*(37세, 경북, 교사), 「혼돈」, 2014, i201409MK531.

50) 임\*\*(47세, 교사), 2015, 미등록.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기록이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카페, 웹서핑 등 온라인 생활에 대한 내용은 변화하는 현대인들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석이 가능하다.

퇴근하고 밖을 보니 비가 그쳤넵(…) 바로 컴퓨터에 앉아서 여식 쿠팡명방에서 좋은 글귀랑 생활정보 보는데 사랑 글이 많다. 지나치고 오늘은 위로 받는 글을 조금 적었다. 그리고 희움 의식팔찌를 보게 되었는데 한번쯤 의식팔찌 사고 싶다 마음 먹었는데 마침 보게되어서 바로 회원가입하고 주문했다!! 색깔도 참 이쁘고 다른 좋은 물건도 많았는데 맘에는 안들어서 팔찌만 몇개 샀다 보고 친구들 나눠줄 수 있음 주고 아님 우선 나만 써보자<sup>51)</sup>

등산, 배드민턴 등과 같은 생활스포츠, 야구나 축구 등 대중화된 스포츠 경기 중계, 방영중인 TV프로그램, 개봉영화, 인기 웹툰과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고유명사(작품명, 출연배우 이름 등)가 언급되거나 이에 대한 기록자의 느낌, 감상, 기분변화에 대한 기록을 통해 연령별 계층별 문화소비자에 관한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1시에 야구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충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야구경기장으로 갔다. 저번 야구경기에는 내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잘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선발에 뽑히지 못해 주변에서 몸이나 풀며 놀고 있었다. 3회가 되자 드디어 출전 기회를 얻었고 3번 나와서 모두 출루하는 기록을 세웠다. 마침 우리 팀이 첫 승을 얻게 되어 오늘 경기의 결과와 함께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다.<sup>5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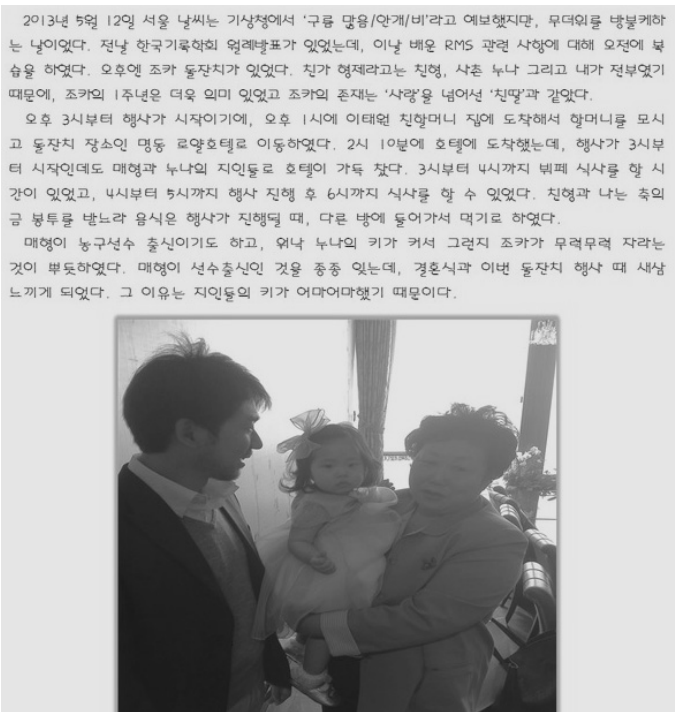
51) rim\*\*\*(27세, 회사원), 「지와이 이틀째 근무」, 2014, i201408-HJ43.

52) 익명(27세, 충청, 남성), 「야구경기」, 2013, IT392.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들의 여가와 레저 활동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 이외에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지, 특히 가정이나 야외에서 여가를 보내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자녀나 조카의 돌, 본인이나 가족, 친구의 생일, 결혼식 또는 각종 기념일, 친척의 죽음과 상/장례에 관한 일기에는 우리 시대 일생의례에 대해 민속학적, 인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림 7〉 nem\*\*\* (26세, 남성), 「조카 돌잔치」, 2013, IT570



2014년도부터는 요리, 급식, 외식 등에 관한 일기, 패션, 코디, 뷰티 등에 대한 일기, 우리 시대 전형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 생활 등 ‘생활 밀착형’ 주제의 일기가 많이 수집되었는데, 이로부터 의식주 생활사를 읽어낼 수 있다.

10:00 A.M. 대풍 ‘노을’이 지나가고 오늘은 아주 맑음이지만 출근길이 추웠다.

속에 반팔을 입고 와서 가디건 구멍으로 바람이 송송송 오늘의 코디는 차콜반팔티, 흰 니트 가디건, 청생 스키니 & 검은 스니커즈 그리고 짧은 단발. 아우 예뻐라 굿굿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은 마몽드 파운데로 베이스 + 입큰 퍼프파우더 팩트

2:00 P.M. 점심은 시리얼+시리얼우유. CU 말고 세븐일레븐 PB 상품인데 진짜 개맛없다. 그리고 후식으로 CU PB 상품인 BIG 요구르트 먹는 중이야. 오늘 회식할거라 Lays 사왔는데 4:30에 한다 고해서 안 먹어도 될 듯. 집에 가서 TV 보면서 먹어야징. 그리고 비닐장갑 사야해. 주먹밥을 싸야하니깐.<sup>53)</sup>

중고등학교에서 수집된 일기나 대학(원)생들의 일기, 그리고 직장인들의 일기에는 ‘늦’잠, ‘밤샘’, ‘깨우다’, ‘졸다’, ‘자다’ 등의 키워드가 많다. 이러한 일기들로부터는 공부, 노동 등과 같은 생산활동과 정신적 건강 상태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참가자들이 쓴 일기에는 ‘살’, ‘다이어트’, ‘체중관리’에 관한 글이 많다.

아,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 밥먹기 전에 운동을 했다. 가원이랑 재은이랑 했는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운동량보다 먹는게 더

---

53) 유\*(26세, 직장인), 「〈제목 : 없음〉」, 2015, 미등록.

많으니 말이다. 이 학교에 와서 얻은 건 살과 지방 뿐인 것 같다. 정말 내 인생에서 단 시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살이 쯤 건 처음인 것 같다. 고등학교란 참 대단한 곳이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얼마나 같지는 나도 모른다. 한시라도 빨리 치마가 널럴해지면 좋겠다. 친구들 치마보면 정말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다. 교복점에서 아주머니가 교복은 크게 사야 한다는 말의 뜻을 눈으로 항상 느끼고 있다. 54)

50대 이상 고연령층 참가자들은 식단관리, 운동 등 건강관리나 본인이나 주변인의 질병에 관한 일기를 많이 남겼다. 이러한 일기들을 통해 생활의학, 가정의학, 정신의학 등 의약학적, 간호학적 접근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일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5월12일 일기의 저자와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가능한 주제를 살펴보았다. 일기 분석의 틀은 크게 형식과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한 축은 일기 쓰는 방법이나 단어, 문장, 문단 등의 사용, 이모티콘, 신조어, 외국어 사용 습관 등을 연구하는 언어학, 교육학, 심리학적 접근이다. 또 다른 한 축은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생산자의 특성을 고려해 기록된 내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인문사회학적 접근이다. 물론 이렇게 확연히 양분하여 이 컬렉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시대인들의 기록을 통한 일상 연구는 기록을 생산하는 방법과 맥락,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 방법론을 알아보기 위해 타 일상자료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 장에서 영국 서식스 대학의 MOA자료 활용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54) 박\*\*(안산 동산고), 「오랜만에 일기쓴 의미있는 날」, 2014, i201409MK293.

## 2) 타 일상자료 연구사례 소개

이 컬렉션이 일상 연구 차원에서 어떻게 확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 서식스 대학에서 수집한 대중관찰자들의 기록이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일상자료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서식스 대학은 이 행사와는 별도로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대중관찰자들이란 자발적으로 일기를 써서 서식스 대학에 제공할 것을 미리 등록한 일종의 일기 생산자 집단이라고 보면 된다. 이처럼 일기 수집에 앞서 생산자 집단을 구성해놓는 이유는 이 컬렉션 분석에서 중요한 것이 일기에 나온 내용(What they say)보다는 누가 일기를 쓰느냐(Who they are), 즉 생산자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식스 대학 측은 지금까지 수집된 일기의 생산자 정보를 프로파일화(化)하였다. 주로 중장년층, 백인, 여성, 중산층, 영국 동남부 지역 거주자들의 참여에 편중됐던 점을 보완하고 컬렉션이 좀 더 균형성과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가질 수 있도록 16세에서 44세 사이의 동남부 지역을 제외한 영국 전역에 거주하는 남성들의 참여를 모집한다. 한편, 이는 매년 특정 주제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여론조사(Public opinion poll)의 성격을 갖는다. 특정 주제어는 해마다 변하는데, 매년 2~3회에 걸쳐 공식적으로 제시한다. 주로 해당 연도에 국가적 차원의 이벤트(1981년 찰스왕세자와 다이애나비 결혼식, 1982년 영국 유럽경제공동체 가입 10주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사고(1997년 다이애나 비(妃) 사망), 국제분쟁이나 해외토픽(2001년 911테러), 그리고 환율, 실업, 가사, 여행, 정원, 가족, 동성애 등 다양한 주제들을 매년 제시한다. 2015년 봄에 MOA수집부가 제시한 제시어는 총선(2015년 5월 7일)과 치매였고, 현재는 연말까지 ‘당신과 온라인(You Online)’, 그리고 ‘16세의 나에게(Dear 16year old me)’라는 주제로 패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글을 어떻게 연구에 활용할까? 아래 표는 비교적 최근 수행된 연구결과들을 정리했다. 분야별로 교육학, 사회학, 역사학, 미디어학, 정치학 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이다. 해당 논문 제목의 저자에 관한 정보는 각주를 달았다.

〈표 8〉 MOA자료를 활용한 학술 연구사례 목록

| 분야   | 발행연도 | 논문제목   |
|------|------|--|
| 사회학  | 2000 | Writing about Health and Sickness : an analysis of contemporary autobiographical writing from the British Mass Observation archives <sup>55)</sup>                 |
|      | 2013 | Mass Observation Archive-How to combine information with the British birth cohort studies <sup>56)</sup>   |
|      | 2015 | When Recognition Fails: Mass Observation Project Accounts of Not Belonging <sup>57)</sup>  |
|      | 2015 | Using Narrative Sources from the Mass Observation Archive to Study Everyday Food and Families in Hard times : Food Practices in England during 1950 <sup>58)</sup> |
| 교육학  | 1993 | Adult learning and life histories: opportunities and issues for qualitative research at the British Mass Observation <sup>59)</sup>                                |
| 미디어학 | 2015 | Television-the housewife's Choice? the 1949 Mass Observation Television Directive, reluctance and revision <sup>60)</sup>  |
| 정치학  | 2015 | Popular Understandings of Politics in Britain, 1937-2014 <sup>61)</sup>  |

- 55) H. Busby, "Writing about Health and Sickness: An Analysis of Contemporary Autobiographical Writing from the British Mass-Observation Archive"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Vol.5, No.2, <<http://www.socresonline.org.uk/5/2/busby.html>>.
- 56) S. Parsons, "Resource report-Mass Observation Archive. CLOSER(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2013.
- 57) V.May, "When Recognition Fails: Mass Observation Project Accounts of Not Belonging." *Sociology* (2015).
- 58) A.Knight, J. Brannen, and R. O'Connell, "Using Narrative Sources from the Mass Observation Archive to Study Everyday Food and Families in Hard Times: Food Practices in England During 1950."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20.1 (2015).
- 59) A.Thomson, "Adult Learning and Life Histories: opportunities and issues for qualitative research at the British Mass Observation Archive," *Research Reflecting Practice* (1993): pp.98-100.

사회학적 분석이 특히 많은데, 수집된 자료의 생산자 정보에 기반을 두어 해당 연도 주제어에 대한 여론 분석이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 연구들은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MOA자료의 대표성보다는 특정 자료를 선별하여 해당 자료가 갖는 개인성과 유일성에 주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헬렌 버스비는 개인의 자전적 글 분석을 통한 인간의 건강과 질병, 그리고 노동 사이의 관계성 연구했다. 1998년 가을 주제어였던 ‘잘 머무는 것과 일상(Staying well and everyday life)’에 대한 249건의 응답 내용 가운데 65세 이하 남성 13명, 여성 26명의 글을 분석했다. 거주/근무 환경 관련 기술, 일과 중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변화, 대인관계, 경제적 한계, 노동 강도, 기타 물리적 환경과의 일상생활 관련성, 노동과 휴식, 감정적 안정과 불안정 상태, 그리고 유급 노동과 질병 사이 관련성이 연구 대상이다. 샘 파슨스의 연구는 MOA일기 생산자의 출생연도별 여론 분포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국내 참가자들의 답변 내용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여론 변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남녀 성역할 변화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시대별 지역별 여론 분포와 공공 차원에서 분석 가능한 정치경제적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응답자 개인에 따라서는 개인의 의식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연도별 주제어와 참가자 나이 분포에 따른 세대별 반응의 차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일기 수집 당시, 남녀 성역할분담에 관한 질문에 대해 46년생(45세), 58년생(33세), 70년생(21세)이 갖는 생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도 찾을 수 있다. 맨체스터 대학의 바네사 메이는 주제어 관계(belonging)에 대한 185건 응답내용을 분석해 일상적 대인관계에서 소속감과 오인(misrecognition)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했

---

60) H.Wood, "Television—the Housewife's Choice? the 1949 Mass Observation Television Directive, Reluctance and Revision," *Media History* ahead-of-print (2015): pp.1-18.  
 61) Jennings, Will, et al. "Popular Understandings of Politics in Britain, 1937-2014."

다. 그는 사람들이 개인적 상황, 인성, 사회적 이슈, 행동, 성격 차원에서 스스로를 외부인(outsider) 또는 보이지 않는 외부인(invisible stranger)으로 규정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오인은 사회적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도출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연구도 가능하다. 런던대 교육학연구원의 아버가일 나이트 등은 1950년 생산된 일기 14편 가운데 세 명의 중산층 여성(61세 은퇴 영화감독/남편과 함께 거주, 47세 전업주부/남편과 함께 거주, 53세 미혼 교사/1인 가구)이 쓴 글을 분석하여 1950년대 영국의 전후(戰後)상황에서 식생활 연구했다. 전시(戰時) 식량배급과 절대적 식량 부족 현상, 식재료 가격 상승 상황에서 일반 가정에서의 식문화 변화상이 어떠한지를 밝혀냈다. 2차 대전 직후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정책변화 등에 비추어 빵, 버터, 설탕 등 생필품 배급과 어류/육류/콩/과일 통조림 보급상황 등 식재료 품목별 소비상황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특정 정치상황 또는 정치적 사건에 관하여 당대인들의 여론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사우스햄튼대의 닉 클라크 등은 1945년과 1950년, 1996/1997년 그리고 2014년에 수집된 MOA 자료를 분석하여 1930년대 이후 정치인, 정당, 선거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여론을 시간적 축에 따라 비교했다. 연구자들은 MOA자료에 대하여 갤럽, Ipsos 등 공식적 여론조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루키아노스 하시오티스는 1944~1945 2차 대전시기 그리스에 대한 영국 군사 개입에 관한 영국인들의 여론을 분석하기 위해 MOA자료를 활용했다. 영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 분개, 동요 이해, 언론 보도에 대한 민심 동요, 정부 정책에 대한 회의적 비판적 태도를 읽어냈다.

한편, 일상에서 대중매체가 갖는 위치를 밝혀낸 연구도 있다. 헬렌 우드는 세계 최초이자 영국에 처음으로 텔레비전이 보급된 1949년, 그 해의 주제어인 ‘텔레비전’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해 당시 전업주부들

의 텔레비전 시청행태 분석했다. 또 가정과 여가활동 사이의 관계, 가정에서 즐기는 오락과 야외활동, 주부들의 선호 장르가 드라마, 스포츠임을 밝혔다. 그밖에 교육학 분야에서는 주제어 교육(Education)에 대한 453편의 응답내용을 분석해 각 급 교육과정이 인격형성, 사회화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 주제들은 “5월12일 일기컬렉션”을 비롯해 다양한 일상 기록 연구에 참고가 된다. 앞서 일기에서 추출된 키워드를 살펴보면 수집처와 수집연도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추출되는 키워드가 ‘텔레비전’ 또는 특정 방송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이들 일기는 텔레비전 시청에 관한 언급에 있어 여가와 오락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헬렌 우드의 1949년 텔레비전에 관한 여론 연구와 같이 우리 시대 대중문화, 야외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가생활의 내용과 기능에 대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비가일 나이트의 전후(戰後) 영국인들의 식생활을 연구 방법론에 주목하여 가족 외식이나 학교 급식, 혼밥, 친구들과의 군것질 등 식생활에 대한 주제가 언급된 일기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과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의 관련성을 밝힌 헬렌 버스비의 연구를 참조해 특정 직업별 일상이 담긴 일기를 분류해 일기 저자들이 매년 5월12일 경험하거나 느낀 점을 비교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sup>62)</sup>

## 5. 향후 전망과 과제

이상으로 5월12일 일기가 담고 있는 주제와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

62) ‘인간과기억아카이브’의 온라인전시관에서는 제2회 5월12일 일기 컬렉션으로부터 “직업별 일상”이라는 주제 섹션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교사, 디자이너, 사회복지사, 공무원, 회사원, 토스트가게 아르바이트 등 직업별 일상을 보는 일기를 읽을 수 있다. (<[http://hmarchives.org/omeka/exhibits/show/exhibit\\_140512/jobs](http://hmarchives.org/omeka/exhibits/show/exhibit_140512/jobs)>).

살펴보았다. 이 컬렉션이 우리의 일상 연구의 주요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크게 컬렉션 수집과 관리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서식스 대학의 5월12일 일기와 대중관찰자들의 글 수집 사례를 통해 이 컬렉션 구성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만 일기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를 통해 수집된 컬렉션 관리에서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수집 과정에서 일기 본문은 물론 정확하고 풍부한 생산자 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첫 해 온라인으로 일기를 제출하는 참가자들에게 단순하게 성별, 지역, 나이 정도를 자율적으로 입력하게 했다. 생산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경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일기 본문만 수집하기도 했다.<sup>63)</sup> 이에 따라 본문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일기를 쓴 사람에 대한 정보까지도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집, 정리된 정보는 정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한 온라인 참가자는 개인정보 입력에서 ‘여성’이라고 입력했으나 일기 내용을 읽어보면 군 생활과 제대 이후의 고민을 담은 일기여서 이는 남성 참가자의 일기로 분류해야 한다. 즉, 참여형 기록수집에서 개인정보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입력사항으로 두어야 신뢰도있는 메타데이터를 기대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2회와 3회 수집과정에서는 이를 반영한 일기 참여양식을 구성했다. 다음은 3회 5월 12일 일기수집 이벤트의 온라인 참여양식이다.<sup>64)</sup> 나이와 거주지, 직업은 물론 참가자가 업로드할 일기의 주제까지 태그나 주제어 형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전 행사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입력하게 하여 지속성 있는 참가자들의 일기 내용 분석을 하고자 했다.

---

63) 제1회 5월12일 일기수집 이벤트 개최를 앞두고 일기 기증 시스템을 설계한 이승일 연구원 (현 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증언.

64) 이 참여양식은 제3회 5월12일 일기수집 이벤트가 개최된 2015년 5월12일과 31일 사이에 대중에 공개되었다.

〈그림 9〉 “제3회 5월12일 일기수집 이벤트” 온라인 참여양식

2015년 제3회 5월 12일 일기 제출

성명/닉네임   
이름과 닉네임, 별명) 중 원하는 명칭 입력

이메일주소   
회신 받을 이메일 주소 입력

나이

거주지   
ex: 강원도 속초시

직업   
ex: 학생, 주부, 회사원, 교사, 공무원, 무직, 기타 등

태그/주제어   
일기 주제 또는 태그로 사용할 키워드 입력

행사참여여부  제3회 행사(2015. 5. 12) 처음 참여  
 제2회 행사(2014. 5. 12) 참여  
 제1회 행사(2013. 5. 12) 참여  
 제1회와 2회 행사 모두 참여

일기파일첨부    
50Mb 이하의 파일만 첨부가능합니다  
일기파일첨부안내

이에 더하여 서식스 대학이 대중관찰자들의 글을 수집할 때 생산자들의 풍부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서식스 대학은 대중관찰자가 되고자 하는 시민들로부터 위와 같은 형태의 온라인 참가신청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본인을 묘사한 내용의 자료를 수집한다. 즉, 출생연도, 성별, 주소, 직업, 결혼유무, 주거형태를 비롯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담은 자기소개서(Self Portrait)와 신상자료(Biographical Information From)를 요청한다. 또, 최근에 촬영된 사진과 참가희망자가 작성할 글에 대한 저작권 동의서(copyright)를 받는다. 물론, 이 문서들

은 접수 후 50년 동안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컬렉션 분석 자료로만 활용될 것을 미리 알린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참가자가 제공할 글과 함께 DB화 되어 개별 글의 내용 분석을 위한 자료로 쓰인다. 또한 이처럼 서식스 대학의 대중관찰 프로젝트가 지속적인 참가자 집단을 모집하는 바와 같이 5월12일 일기수집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다. ‘(가칭)5월12일 일기 클럽’을 창단하여 연령, 지역, 성별, 직업 면에서 균형성 있는 참가자 집단을 구성하면 더욱 입체적인 일상기록 수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더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일기를 생산하게 하는 것도 수집 단계에서 필요한 과제다. 매년 주제어나 이슈가 된 사건사고 등을 제시하거나 온라인 전시관에서 전형적인 일상을 보여주는 일기 외에도 앞서 분석한 여러 주제의 일기들을 소개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5월12일 일기수집 이벤트’와는 별도로 다양한 형태의 일상기록 수집을 구상할 필요도 있다. 앞서 국내외 연구동향에서 연구자들이 관찰대상으로 둔 일상기록에는 일기 외에도 메모, 편지, 자서전을 비롯해 MOA측이 수집한 자전적 형태의 글이 모두 포함된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이러한 수집사업을 지속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본고에서 소개한 ‘5월12일 일기수집 이벤트’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일기장이나 다이어리에 육필로 생산되는 기록은 물론 매일같이 SNS, 블로그, 카페 등에 업로드하고 다른 네티즌들과 소통하며 생산되는 다양한 일상기록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이를 기증하여 자발적으로 일상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기획할 예정이다.

컬렉션 관리 단계에서도 필요한 작업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하여 대만의 일기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준다. 대만의 중앙연구원은 9종의 일기를 수집하여 각 편의 일기생산자와 내용에 대한 연구, 전사와 오타 수정, 등록 등을 체계적으로 거쳤다. 또한 기록 생산자와 소장자(후손 등), 번역자, 작업자들의 권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개범

위와 전시, 출판, 연구 등 활용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5월12일 일기컬렉션” 관리에서도 참고해야 한다. 현재 ‘인간과 기억아카이브’는 이 컬렉션을 AtoM시스템<sup>65)</sup>을 통해 출처별로 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실물자료로 수집된 자료는 디지털화(스캔)하고 디지털자료인 경우는 PDF파일 등 서비스용 포맷으로 변환하여 간단한 정보(제목, 생산자명)와 함께 열람할 수 있다.<sup>66)</sup> 이렇게 관리되는 일기들이 누가 어떠한 맥락에서 생산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처에 대한 부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실물자료 분석에서 수집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함을 지적했는데, 이에 따라 각 출처를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연동시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일상 연구에서 지역별 학교분포와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여건,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 또는 졸업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대학진학율 등과 같은 교육통계나 학교별 교육과정, 각 학교의 특색을 알 수 있는 학교 사료 등이 함께 제공되면 해당 출처에 분류된 일기 생산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집된 일기의 생산자들을 직업별로 분류하여 직업별 일상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의 출퇴근 관련 일상 연구에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통계나 일기 생산자들의 거주/근무 환경 분석에 대한 조사 자료들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앞서 컬렉션 내용 분석에서 시도한 본문 전사와 키워드 추출은 앞으로 수집될 기록물에 대하여 좀 더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문 전체에서 관찰되는 단어와 문장, 통제어 처리, 특정 표현의 빈도수 등은 시스템 구현을 통해 기록물 분석을 수행하되 그 내

65) AtoM에 관하여는 다음 논문 참조, 이보람, 황진현, 박민형, 김형희, 최동운, 최윤진, 임진희, 『공개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록시스템 구축가능성 연구-ICA AtoM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9, 2014, 193-228쪽.

66) 『2013.07~2015.06 인간과기억아카이브 백서』,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5, 34쪽.

용 분석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지도<sup>67)</sup>를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으로서 각 주제 영역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단계에서 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기의 형식은 물론 내용 면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 생활과학,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집된 기록물에 대한 분석 단계에서 기록학 연구자들과 함께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협업과 콘텐츠 공유를 통해 “5월12일 일기컬렉션”이 우리 사회의 일상 연구가 더욱 입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

67)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일상아카이브의 수집과 관리를 위해 설계하고 있는 일상생활지도(Map)는 기록주체와 기록물 내용에 따라 일상생활의 개략적 개념을 대분류로 나누어 놓은 일종의 기록수집 설계도이다. 여기에는 조직과 네트워크, 통치, 기본적 물질생활, 노동과 경제생활, 소비, 커뮤니케이션, 사회화와 이탈, 의례와 관습, 문화와 놀이 등이 속한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일상생활지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3.07~2015.06 인간과기억아카이브 백서』,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5, 237-247쪽 참조.

## ABSTRACT

### Value and Prosect of individual diary as research materials : Based on the “The 12th May Diaries Collection”

Choi, Hyo Jin · Yim, Jin Hee

“Archives of Everyday Life” refers to an organization or facility which collects, appraises, selects and preserves the document from the memory of individuals, groups, or a society through categorizing and classifying lives and cultures of ordinary people. The document includes materials such as diaries, autobiography, letters, and notes. It also covers any digital files or hypertext like posts from blogs and online communities, or photos uploaded on Social Network Services. Many research fields including the Records Management Studies has continuously claimed the necessity of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ordinary people’s records on daily life produced every moment. Especially diary is a written record reflecting the facts experienced by an individual and his self-examination. Its originality,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are considered truly valuable as a document regardless of the era. Lately many diaries have been discovered and presented to the historical research communities, and diverse researchers in human and social studies have embarked more in-depth research on diaries, their authors,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time. Furthermore, researchers from linguistics, educational studies, and psychology analyze linguistic behaviors, status of cultural assimilation, and emotional or psychological changes of an author.

In this study, we are conducting a metastudy from various research on diaries in order to reaffirm the value of “The 12th May Diaries Collection” as everyday life archives. “The 12th May Diaries Collection” consists of diaries produced and donated directly by citizens on the 12th May every year. It was only 2013 when Digital Archiving Institute in Univ. of Myungji organized the first “Annual call for the 12th May”. Now more than 2,000 items were collected including hand writing diaries, digital documents, photos, audio and video files, etc. The age of participants also varies from children to senior citizens. In this study, quantitative analysis will be made on the diaries collected as well as more profound discoveries on the detailed contents of each item. It is not difficult to see stories about family and friends, school life, concerns over career path, daily life and feelings of citizens ranging all different generations, regions, and professions. Based on keyword and descriptors of each item, more comprehensive examination will be further made. Additionally this study will also provide suggestions to examine future research opportunities of these diaries for different fields such as linguistics, educational studies, historical studies or humanities considering diverse formats and contents of diaries. Finally this study will also discuss necessary tasks and challenges for “the 12th May Diaries Collection” to be continuously collected and preserved as Everyday Life Archives.

**Key words : May 12th Diary, The 12th May Diaries Collection, Mass Observation Archive, Everyday Life Archives, Diary, Research materials, Personal archives**